

뉴멕시코
한인들을 위한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11/12월호
2022



Native Spirit (부제: 금빛 향연) Oil on Canvas 30"x40" By Gary E. Kim

금빛 향연

김월수(金月洙)

새파랗게 드높은 하늘의 얼굴
부드러운 태양의 눈길

우거진 숲
성숙한 시간의 강물이 흐르면
골짜기마다.
감돌아 나가는 푸른 바람

굳은 대지의 바다
둥둥 떠다니는
흰 기둥에 금빛 잎의 돛
서로 얹힌 뿌리의 배

성인의 영혼처럼
눈을 감고 보는 듯한
보이는 세계를 넘어서
느낌으로 아는 여행

서양화가 Gary E. Kim님의
“금빛 향연” 작품을 보고
쓴 시입니다.

CONTENTS

Cover : 금빛향연 게리 김/김월수 : 1	종말 세대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신경일 : 14
교민여러분께 윤태자 : 2	‘못 믿겠는데요’의 하나님 나정자 : 15
뉴멕시코 한국학교 소식 이수신 : 3	“하늘도 땅도 열기구 천국” : 16
한국학교 광고 : 4	신간소개 나 말고 그리스도 이유신 : 17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박광종 : 5	음악이 치매 예방에 도움된다 : 18
한인회장 선거공고 : 6	영어이야기 23 달력이야기 이상목 : 19
국내외 주요뉴스 : 7	수필 혼란스런 두마음 레베카 김 : 21
아시아계 배우 얼굴이 새겨진 25센트 동전 : 8	기행문 : 튀르키예 여행기 송은숙 : 22
스피드카메라에 찍히지 마세요! : 9	기행문 : 뉴멕시코 가을 여행과 만남 윤봉수 : 24
조금 더 생각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김기천 : 10	대표 기도문 구경범 : 26
오! 수잔나 웨슬리! 나정용 : 11	뉴멕시코 한인교회 안내 : 27
수필 : 기상이변의 주범 이정길 : 13	한인업소안내 / 광고 : 28-30

한인회 소식

교민 여러분께

윤태자

제19대 뉴멕시코
한인회 회장

단풍이 곱게 물든 한국의 가을 경치속에서 이렇게 마지막 광야의 소리 원고를 쓰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임기동안 초창기에는 한인회관 공사를 하였고 그후로 지금까지 여러가지 한인회 일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신 손길들이 있어서 잘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두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9월 10월 한인회 소식은 9월17일에 한미 장학재단 장학금 수여식이 덴버 세미너리 채플에서 있었습니다. St.John college의 홍유민양과 UNM의 김효림양과 이세라양 세명의 수여자가 있었고 홍유민 김효림양과 제가 덴버에 다녀 왔습니다. 9월 27일에는 영사업무가 있었고 여권 11건 위임장 18건 가족관계 증명서11건 그 외 여러가지로 전체 90건의 영사업무가 있었습니다.

저는 10월 2일에 한국에 도착하여 미주 총연모임, 세계 한인회장 대회, 세계한인총연합회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세계 한인회장 대회는10월 4일부터 7일 까지로 세계 각국에서 350여명의 회장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치루어 졌습니다.

10일부터 12일까지는 역사 문화 탐방 여행을 경상북도의 초청으로 경주와 안동을 다녀 왔습니다. 경주 불국사와 첨성대를 고등학교 2학년때 수학여행으로 가고 처음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경주가 커다란 도시로 변하였고 경북도청이 안동으로 이전하여 전혀 예전의 모습을 찾을수 없었습니다.

방문한 일행들은 저마다 조국 대한민국의 발전된 모습에 가슴 뿌듯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10월5일에 최희수씨가 어버이회 식사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11월 2일에는 장로교회에서 식사후원을 해 주십니다. 후원해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11월6일 오후5시에 한인회장 입후보자 공고가 있습니다 .

11월 19일에는 김치축제가 있습니다. 올해는 재외 동포재단에서 3000불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한인회에선 17일부터 다듬고 절이고 김치를 담습니다. 파김치,깍두기,배추김치,오이김치,막김치등 여러가지 김치를 담고 시범을 보이며 한국의 김치를 알리는 K-연대 김치축제에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17일 아침 부터 한인회관에 모여 김치를

담으니 오셔서 도와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12월3일 오전 10시에 한인회장 선거가 있습니다

12월 4일 오후 5시에 한인회 총회가 있습니다.

12월 18일 오후 5시에 한해를 마무리하는 망년회가 있습니다. 교민 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 드립니다.

2년이란 임기동안 최선을 다 한다고는 했지만 교민 여러분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도 많았을것 입니다.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고 새롭게 출범할 20대 한인회를 적극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제 19대 한인회장

윤태자 드림. ■

K-김치 세계연대

뉴멕시코 김치나눔 축제

Korean Kimchi Festival in New Mexico

📅 2022년 11월 19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Saturday, November 19, 2022 @ 11 am - 3 pm

📍 뉴 멕시코 한인회관 (KAANM)

@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주최:



뉴멕시코주한인회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New Mexico

후원:



재외동포재단
OVERSEAS KOREANS FOUND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KOWIN
Korean Women's International Network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한국학교
(NM Korean Language School)

한국학교소식

뉴멕시코 한국학교 소식

이수신

뉴멕시코 한국학교
교장



아낌없는 사랑과 열정으로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계시는 뉴 멕시코 한인 학부모님들 안녕하십니까? 그토록 뜨겁던 뉴멕시코의 더운 열기도 북풍이라는 겨울 술래를 피해 어디론가 숨어 버리고 봄 가을이 짧고 일교차가 심한 이 지역 특성으로 인해 우리 옷장에는 여름과 겨울 의복들이 뒤섞여서 주인의 선택을 기다리는 초 겨울입니다.

뉴 멕시코 한국학교의 가을학기는 그 어느때 보다도 혼신의 힘을 쏟아붓는 선생님들과 헌신적인 학부모들의 덕분으로 학생들의 학습열기가 무르익어 가는것 같습니다. 지난 한가위 특별행사는 코원 회장 및 회원님들의 후원으로 우리 어린이들의 얼굴에 함박웃음이 피어나는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모처럼 입어보는 한복의 짙어진 바지와 팔꿈치가 보일듯한 옷소매에도 아랑곳 않고 일년치 엔돌핀을 모두 쏟아내는듯 행복해 보였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도 질투를 느낄만한 포토 스팟 배경과 수라상에 올려도 될만한 맛있는 송편을 만들수 있도록 장금이를 능가하는 요리솜씨로 아낌없는 수고를 해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국학교에서는 한글 수업후에 무료로 태권도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우리의 전통무술을 익히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으며 곧 다가오는 김치축제 행사때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단체로 도복을 마련할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 전 한인회장 문 상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린 동생들을 위해 기꺼이 귀중한 시간을 쪼개어 보조교사로 봉사해온 고등학생 자원봉사자들 대다수가 바이

든 대통령 자원봉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수상자들은 김 이암 군, 정 승은 양, 박 효진 양, 엄 예은 양입니다. 수상자 모두에게 마음의 꽃다발을 드리며 봉사활동에 참가할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배려를 해 주신 부모님들께도 아울러 감사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우리 어린이들과 같이 시간을 보낼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한인회와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리며 저는 이번 가을학기가 끝나면 후임 교장에게 자리를 내어 줄려고 합니다. 이곳에서 자녀들을 양육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좋아하고 오고싶어 하는 학교를 만들어 보고 싶었지만 많은 아쉬움이 남는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인 커뮤니티와 한국학교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봉사와 후원을 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뉴 멕시코 한국학교장 이수신 ■



바이든 대통령 자원봉사상 수상식

뉴멕시코 한국학교

2023 봄학기 한글반 개강 및 등록안내

봄학기 한글반 개강을 알려드립니다. 뉴 멕시코 한국학교는 훌륭한 선생님들과 열정적인 고등학생 자원 봉사자들과 함께 봄학기 개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자라나는 한인 학생들에게 한글학습의 혜택과 역사와 문화를 익히게하고 한민족이라는 긍지를 심어주고 정체성을 확립시키며 한인 학생들간의 유대감을 향상시키는 많은 기회를 제공할려고 합니다.

- 수업료: \$165.00 (둘째 \$150.00, 셋째부터는 무료)
- 등록비: \$30.00 (조기등록시 면제2023년1월9일까지 등록시)
- 교재 배송비 권당 \$10.00
- 수업요일 및 시간: 유아 및 초등학생반: 매주 토요일 오전 9:10-12:30 태권도 시간표는 추후통지

중고등학생반: 추후 통지

성인반 1 (초급, 중급, 고급반) 매주 금요일 오후
5:30-7:30

성인반 2 (초급, 중급, 고급반) 매주 토요일 오후
3:30-5:30

- 한 학급당 최소인원이 5명입니다. (5명미만일 경우 통합 또는 취소됨)
- 수업기간: 1월 27일 부터 5월 13일 (APS 봄방학주는 수업없음)
- 학교위치 및 주소: NM Korean Language School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문의 및 상담: 이메일: nmkoreanlanguage@gmail.com

학교전화: 505-271-1777

Web: kaanm.com (홈페이지 상단 한국학교)

- 오리엔테이션 및 학급편성: 1월21일 토요일 (출석필수)

오전 10:00-10:50 (성인반)

오전 11:00-11:50 (유아, 초등, 중고등반)

- 수업료 및 등록비 납부방법: 등록신청서 작성후 체크나 머니오더 동봉후 우편으로 납부 (pay to the order of: KAANM, 책 왼쪽하단에 학생이름 기재요망)
등록신청서는 학교에서 배부 혹은 KAANM.com 한국학교 에서 프린트 가능.
- 환불없음, 단 학급취소시 전액환불
- 수업은 대면으로 진행합니다.

한국학교는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와 주정부 보건국의 지침을 따릅니다.

한국학교 소식(계속)



한국학교 광고

뉴 멕시코 한국학교에서는 2023년 봄학기에 아래와 같이 선생님과 고등학생 자원 봉사자들을 초빙합니다.

교장 (상담후 수고비 결정)

성인반 (외국인반) 선생님 2명: 한글학교 교사 경력 3년 미만 \$22.50/시간

한글학교 교사 경력 3년 이상 \$25.50/시간

고등학생 자원봉사자 00명: 각종 장학금 및 봉사상 추천 기회제공

연락처: 현 한인회 및 교장, 차기 한인회

New Mexico Korean Language School

2023 Spring Semester Classes Information

Visit our On-line Version of Voice in the Wilderness for Full Information of this AD in English. Voice.kumcabq.com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

박광종

뉴멕시코 KOWIN 지부장
하이랜드대학교수



추석행사로 매년 코윈에서는 한국학교 학생들을 위한 꽃송편을 만드는 시간을 갖는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글이 쓰여진 사진부스가 추석행사 한글학교에 들어가는 길에 우리를 곱게 맞이하고 있었다. 서영이, 가영이 어머니이자 우리 코윈 멤버인 박선영회원님이 정성껏 아이들을 위해 만든 사진부스. 그래서 찾게 된 이 글의 어원. 한국민속대백과 사전에 의하면, 조선 순조때 학자이자 문신이었던 김매순이 한양의 연중행사를 편찬한 세시 풍속 자료집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 한다. “가위란 명칭은 신라에서 비롯되었다. 이 달에는 만물이 다 성숙하고 중추는 또한 가절이라 하므로 민간에서는 이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아무리 가난한 벽촌의 집안에서도 예에 따라 모두 쌀로 술을 빚고 닭을 잡아 찬도 만들며, 또 온갖 과일을 풍성하게 차려놓는다. 그래서 말하기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 같기만 바란다(加也勿 減夜勿 但願長似

嘉俳日)’라고 한다.” 아무리 가난한 벽촌의 집안에서도 이날만큼은 잔치가 벌어지고 모든 근심을 잊고 만물의 풍성함을 즐기고 감사했듯이 코비드때문에 불안한 시기지만 추석만은 밝게 비추는 보름달처럼 우리의 맘 또한 밝고 여유로운 한가위를 맞기를 바란다. 아이들의 고사리손으로 각자의 개성과 재능으로 여러가지 모양으로 만든 꽃송편이 너무나 귀해 보였던 것은 아이들이 한국의 문화와 풍습과 유래를 배우면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키워 나가기 바라는 작은 소망의 짝이라 생각했기 때문인 거 같다. 당근, 백년초, 녹차가루로 만든 색색깔의 반죽과 고소한 깨와 흑설탕의 달콤함과 아이들의 고물고물 고사리손으로 만들어가는 송편을 보자니 맘한구석이 찡해진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 이말처럼 올해의 한가위도 만물의 풍성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차세대가 여물어가고 성숙하기를 바라본다. ■

이번 추석행사에서도 코윈회원 한분한분이 꽃송편반죽부터 아이들과 송편만들기, 송편을 찌서 아이들이 집에 가져갈 수 있도록 포장까지 많은 도움을 주셨다. 코윈은 11월 19일에 있을 김치축제에서도 한국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 한국문화체험부스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12월 9일 10일 이틀간 코윈캠ป์를 계획중이다.



뉴멕시코 한국학교 소식 (계속)

지면 관계로 올리지 못한 사진을 광야의 소리 온라인 웹진에서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뉴멕시코주한인회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New Mexico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New Mexico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505.271.1777

<http://www.kaanm.com>

제 20 대 뉴멕시코주 한인회 회장 선거공고

뉴멕시코주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제 20 대 한인회장 선거일정과 한인회장 후보 등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입후보를 원하시는 분은 기일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멕시코주 한인회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일이니 만큼 한인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부탁드립니다. 20 대 한인회장은 2023 년 1 월 1 일부터 2 년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 아 래 -----

1. 회장 후보등록 및 구비서류 :

등록일자: 10 월 30 일 오후 5 시에서 7 시

등록장소: KAAANM 한인회관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구비서류: 후보등록신청서, 뉴멕시코 주민 3 명의 추천서,

공탁금: \$3,000 in Cashier's Check only (기권자와 탈락자는 선거후 \$1,500 환불됨)

2. 입후보자 공고:

2022 년 11 월 6 일 오후 5 시

3. 선거일시:

2022 년 12 월 3 일 오전 10 시 ~ 오후 4 시까지 (투표마감 후 즉석에서 개표진행)

4. 후보자격:

본회의 규칙을 준수하고 2 년이상 등록된 정회원으로, 뉴멕시코주에 3 년이상 거주한 40 세 이상으로, 타인의 모범이 되며, 결격 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한인회장선거는 뉴멕시코주 한인회 정관 제 6 장 선거관리 위원회 규정에 의거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모든 유권자분들은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뉴멕시코주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진옥

위원: 손말레, 윤진옥, 최성원, 조영자

NEWS

지난 두달(9/10월) 국내외 주요 뉴스

9월 5일- 영국의 보수당 당대표 선거에서 리즈 트러스가 총리직에 취임하였다.

9월 8일 - 영국의 여왕인 엘리자베스 2세가 향년 96세의 나이로 서거하였다.



9월 8일 - 찰스 3세가 그의 어머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죽음으로 영국과 다른 14개의 영연방 왕국의 왕이 되었다.

9월 19일 -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엘리자베스 2세의 장례식이 국장으로 거행되었다.



9월 27일-아베 신조 전 일본총리의 장례식이 국가장으로 거행되었다.



9월 30일-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인 남부 및 동부의 도네츠크, 루한스크, 헤르손, 자포리치아를 러시아 연방으로 흡수하는 조약에 서명했다. 이 합병은 국제 사회에서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된다.

10월 1일-인도네시아 자바주 말랑 리젠시에서 수천명의 관중이 경기장에서도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해 125명이 사망하고 수백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10월 4일-前 연세대학교 부총장, 前 신민당 대표최고위원이었던 김동길교수가 향년 94세로 별세하였다.



김 교수는 지난 2월 코로나19에 확진됐다가 회복했지만, 3월부터 건강이 급격히 악화해 입원 뒤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못한 가운데 지난 4일 세브란스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보수진영의 원로로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아 왔다.

10월 4일-북한이 5년만에 일본 열도까지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10월 8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크림 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연결하는 유일한 도로 다리가 크림 반도와 러시아를 연결하는 크림 다리에서 폭발이 발생하여 부분 붕괴가 발생했다.



10월 16~23일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 대표대회가 개최.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로 선출되었다.



10월 20일 -영국의 리즈 트러스 총리는 취임 45일째 되는 날 사임을 발표했다.



10월 22일-조르자 멜로니가 이탈리아 총리로 지명되면서 이탈리아에서 100년만에 극우 정권이 들어섰다.

10월 25일 - 한승수 전 국무총리가 유엔총회 의장협의회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10월 27일- 삼성전자는 27일 이사회를 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회장 승진을 의결했다. 이 부회장은 별도의 취임식 없이 회장으로 취임했다.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핼로윈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 해밀톤호텔 앞 좁은 골목길로 인파가 밀리면서 대형 압사 사고가 발생하여 150여명이 사망, 170여명이 부상당했다.



핼로윈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었던 이태원 모습 (10월29일)

아시아계 배우 얼굴이 새겨진 25센트 동전

미국 역사상 최초로 아시아계 배우 얼굴이 새겨진 화폐가 유통된다.

10월 20일 스미스소니언 온라인 잡지는 “미국 통화로 최초의 아시아계 미국인 안나 메이 왕을 만나세요”라는 기사를 올렸다. 부제목으로는 “선구적인 여배우는 차별을 극복하고 글로벌 스타가되었습니다”라고 달아서 20세기 초중반 당시의 인종차별의 사회상을 내 비쳤다.

미국 조폐국이 중국계 영화배우 안나 메이 왕(Anna May Wong)이 새겨진 25센트(쿼터:Quarter) 동전을 만들기 시작하여 시중에 유통이 시작된다는 발표가 나왔다. 이



런 배경에는 지난 2020년 미 연방 의회가 통과시킨 법이 있다. 해당 법은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미 수정헌법 제19조 발효 100주년을 기념해 추진한 사업의 하나로 미국 역사상 중요한 여성들이 등장하는 주화를 제작하여 유통시키는 여성 쿼터 프로그램을 채택하기로 했었다.

안나 메이 왕은 지금까지 미국 여성 쿼터(American Women Quarters) 프로그램을 통해 25센트 쿼터 동전에 새겨진 다섯 번째 여성이다. 올해 초 조폐국은 시인이자 인권운동가인 마야 안젤루(흑인), 미 최초의 여성 우주비행사 쉐리 K. 라이드(백인), 여성참정권 운동가 아델리나 오테로-워렌(라틴계), 체로키 네이션 추장 월마 맨킬러(인디언 원주민)의 동전을 내놓았다. 내

년에는 저널리스트이자 활동가인 Jovita Idar, 전 영부인 Eleanor Roosevelt, 조종사 Bessie Coleman, 교사이자 작곡가인 Edith Kanaka'ole, 발레리나 Maria Tallchief를 새긴 동전을 만들 예정이다. 미국 여성 쿼터 동전의 다른 면에 새겨진 조지 워싱턴의

초상도 지금까지의 모습과는 다른 1931년 워싱턴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대회를 위해 아티스트 Laura Gardin Fraser가 디자인 했던 것으로 바꾼 점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

1905년 로스앤젤레스 차이나타운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중국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메이 왕은 할리우드의 무성영화 시대에 그의 십대에 연기를 시작했다. 중국 혈통 때문에 메이 왕은 인종 차별에 직면했었다. 그녀는 백인 동료 배우에 비해 급여가 적었고 감독은 종종 그녀에게 인종 및 민족 고정 관념을 과장하는 역할을 맡기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그녀는 미국 사회가 중국계 여성을 이국적이고 젠더화된 고정 관념으로 보는 시대속에서 당당히 비전과 야망을 지닌 미국인의 한 여성으로 평가받고 싶어 했다고 애리조나 주립 대학의 '성별 및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연구'의 연구원인 Karen Leong은 워싱턴 포스트지의 Bryan Pietsch에게 말했다.

미국 영화 산업의 인종차별에 지친 메이 왕은 1928년 유럽으로 건너가 세계적인 스타가 되어 다양한 독일, 프랑스, 영국 영화에 출연했다. 그녀는 유럽 전역의 보드빌 투어(vaudeville tour)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와 펄벅의 소설 “대지”(The Good Earth)를 영화버전으로 만든 MGM 영화에서 오란(O-lan)의 역으로 출연 했다. 이



어서 처음이자 유일한 중국 여행에 대한 단편 영화를 만들었다. 나중에 그녀는 TV 시리즈 "Liu-Tsong 부인 갤러리"에 출연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보도한 바와 같이 1933년에 메이 왕은 잡지 인터뷰어에게 이렇게 말했다. “왜 영화속에 중국인은 거의 항상 잔인한 악당이거나 살인자나 배신자 역으로 나오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할리우드는 1960년 할리우드 영예의 거리(Hollywood Walk of Fame)에서 메이 왕의 재능을 인정했다. 이듬 해 1961년에 메이 왕은 사망했지만 역경에 처한 가운데서도 굽히지 않았던 그녀의 결의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고 스토니부룩대학의 역사가 Shirley J. Lim은 그의 저서인 메이 왕의 전기에 썼다.

발췌/번역 : Smithsonian Magazine, "Meet Anna May Wong, the First Asian American on U.S. Currency"

-The trailblazing actress overcame discrimination to become a global star-
By Sarah Kuta, October 20, 2022

참고: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Anna_May_Wong

왕의 본명: 黃柳霜 (Wong Liu-tsong)

■

지역소식

스피드 카메라에 찍히지 마세요!

10월24일자 알버커키 저널에 나온 기사에 의하면 알버커키 경찰국은 지난 5월부터 과속 운행이 많은 10개 지점에 스피드 카메라를 설치하여 과속한 운전자에게 소환장(Citations)과 경고장(Warnings)을 발부하였다고 한다. 위반자는 100달러의 벌금을 내거나 4시간의 사회 봉사를 하게 했다고 한다.

최근 한달동안에 10개의 장소에서 규정 속도를 11마일(11-plus mph) 이상 과속한 차량수를 수집한 통계를 발표했는데 이 통계를 보면 가장 많은 과속통계가 나온곳이 Carlisle과 San Mateo 사이의 Gibson 도로인데 적발된 차량이 양방향으로 합치면 17만7천건이 된다. 두번째로는 Unser 도로 두곳에 설치된 카메라에서 14만4천 차량이

과속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스피드 카메라가 설치된 12곳의 자리는 이제 비밀사항이 아니며 그 위치는 Carlisle과 San Mateo 사이의 Gibson 동서 양방향, Wyoming과 Eubank 사이의 Montgomery 서쪽 방향, One-Way 도로인 Lead에서는 Mesa를 지나는 지점, Coal에서는 Cornell을 지나는 지점, Central도로에서는 Tingley와 New York사이에서 서쪽 방향, Lomas 도로에서는 Virginia를 지나는 지점에서 서쪽 방향, San Mateo 도로에서는 Montgomery를 지나는 지점에서 남쪽 방향, Unser 도로에서는 Tower 교차지점과 Western Trail교차지점에 각각 북쪽 방향, Coors 도로에는 Fortuna와 St. Joseph 교차지점에 각각 북쪽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 대상으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

이달 초 알버커키 경찰국은 카메라 설치 이후 과속 운전자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발표했다. San Mateo 인근 Gibson 도로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면 제한 속도에서 20mph 이상으로 달리는 운전자는 70%, 10mph 이상으로 달리는 운전자는 50%가 줄었다는 결과가 나온것이다.

시 웹사이트에 의하면 5월 25일부터 10월 17일까지 14,701건의 소환장이 발급되어 있고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60만불 이상의 벌금이 징수됐다고 한다. 시 당국은 스피드 카메라 설치로 인해 알버커키 운전자들이 운전 속도를 늦추어서 과속 운전자가 줄어들 것을 기대하고있다. ■



알버커키시 스피드 카메라가 설치된 12곳

감사의 달에: 조금 더 생각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김기천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목사님, 중고등부 교실이 필요합니다.” 몇 주 전에 김수진 교장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즘 중고등부 학생 숫자가 많아져서 학생들을 위한 교실을 마련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2022년 올 한해가 시작된 지가 엿그제 같은데 벌써 겨울 초입에 접어들었습니다.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는 바람에 지난 새벽예배 때부터 본당에 히터를 켜고 있지요. 무심코 지내는 세월 같지만 그동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부쩍부쩍 커갔던 것입니다. 올 여름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할 때에 송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한 살 반밖에 안되어 걷기조차 쉽지 않을 법한 아이가 여름 성경학교에 참석한 것도 놀라운데 자기 몸보다 커 보이는 가방을 메고 수업을 따라다니는 것이 너무 인상적이었지요. 송아와 같은 아이들이 교회생활을 통하여 신체적으로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건강하게 성장해가는 것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큐멘터리 작가 박지현의 책 “참 괜찮은 태도”에서 작가는 병실에서 암과 씨름하고 있는 한 젊은 말기 환자에게서 “늙어갈 수 있는 것도 축복입니다. 저는 늙어갈 기회도 박탈된 사람이거든요”라는 말을 듣고는 늙어갈 수 있는 것 또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환자는 물조차 들이킬 수 없을 정도로 온 몸이 암으로 전이된 상태라 “물 한 잔 시원하게 마셔봤으면 원이 없겠습니다”라고도 했습니다. 물 한 잔 마시는 것은 일상이며 당연한 것인데 누구에게는 간절한 소망인 셈이지요. 몇 년 전에 저도 맹장수술을 하고 집에

와서 회복하던 때가 기억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야 하는데 아무리 애를 쓰고 이리저리 뒹굴어보아도 너무 아파서 혼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지요. 그때 눈만 뜨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며 감사할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너무도 당연해서 잊고 살았지만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고 감사하는 생활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크리스천의 믿음 생활 중심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대부분 교인들은 주일 예배 시간에 맞추어 교회에 와서 한 시간 반 정도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배가 끝나면 서로 인사를 나누고 교제를 하고 집에 돌아오면 주일성수를 했다는 안도감으로 살아가지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도 익숙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배후에는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 미리 주보를 만들고 파워포인트를 제작하신 분들이 있었지요. 매 주일 받아보는 주보 역시 예배 전에 미리 와서 알맞게 접느라 수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집어가라고 해도 되는데 일찍부터 단정하게 차려입고 친절하게 주보를 나누어주시는 분들이 있었지요. 예배 시작과 더불어 열정적으로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들 또한 예배 전과 후에 미리 연습하고 맞춰본 다음에 앞에서는 것입니다. 대표기도 헌금위원이나 영어회중을 위한 통역위원 등이 협력하여 예배를 돕고 있었지요.

예배가 끝난 후에도 여전히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통한 친교를 위해서 토요일부터 음식을 준비하고 주일에도 일찍부터 나와서 주방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설거지 청소 등으로 헌신하신 분들이 있었지요. 모두가 집으로 간 후에도 매주 늦게까지 남아서 헌금을 계수하는 재정부원들도 있었습니다. 토요일 새벽 예배 때마다 공급하는 아침 식사용 베이글에도 숨은 손길이 있었습니다. 목요일이 되면 가게에서 베이글 박스를 픽업해서 토요일 새벽예배가 시작되면 따끈하게 구워놓았다가 예배를 마치면 먹을 수 있도록 커피와 함께 준비해놓는 손길이 있었지요. 주중에도 여전히 교회 건물과 주변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었기에 교회가 지금까지 깨끗하게 관리된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회를 위한 광야의 소리 발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었지요.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고심하며 헌신하시는 선생님들 또한 잊을 수 없습니다. 속회 모임을 위해서 연락을 하며 속도원들을 위해 기도하는 속장님 인도자들 또한 잊을 수 없지요.

예배만 드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드린 예배를 위해 수고와 헌신과 열정을 다했던 이들을 기억하고 다음에 만나면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

칼럼

오! 수잔나 웨슬리!



나정웅
뉴저지연합감리교회
은퇴 감리사

신앙생활의 단위는 ‘하루’입니다. 매일 매일 새로워져 새사람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성도 입니까? 매일 새로워 지는 사람입니다.

사실상 기독교의 매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 매일 매일 새로워 지니까, 매일 매일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항상 기뻐함’의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이며,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이러한 변화가 없다면 비극 중 비극입니다. 그 분은 Almost Christian으로써 겉으로만 기독교인 처럼 보일 뿐입니다. 신약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구약에서도 이 점을 강조하기를 주께서는 매일, 날마다, 일정하게, 계속해서 상번제(day by day as a regular offering)로 드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깊은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은 매일 주님을 새롭게 섬기며 살게 합니다.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날마다 주께 더 가까이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슴 속에 있는 성령의 불이 더욱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매일 매일 영적 재 정비부터 하는 것이 신앙인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새사람 (엡4:24)을 옷입듯 무장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구원 받은 존재라도 여전히 육신을 가진 존재로서 자신의 부끄러움, 수치, 연약함을 계속 지니고 있어 매일 아침과 저녁에 ‘규칙적으로’ 이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이 신앙성장에 유익한 것임을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Susanna Wesley는 일찍이 깨달아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훈련 시켰던 것입니다. 사실 감리교 운동(Methodist

Movement)은 여기서 부터 시작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우리 모두는 그에게 많은 빚을 지고있는 것입니다.

본시 인간은 죄악의 뿌리가 깊어서 주님의 뜻을 보지 못 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 하려고도 않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할 뿐만 아니라, 깨닫는 것도 느립니다. 그래서 미련한 일을 반복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백해무익한 고집을 내려 놓지도 못 합니다. 먼 훗날 무릎을 치며 때때로 후회 하기도 합니다만 참다운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 오지도 못하는 한심한 존재입니다. 여기에 착안하여 Susanna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일찍부터 신앙적으로 훈련 시켰습니다. 바로 그 점이 뛰어났었던 것 이었으며,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외친 아들, 요한 웨슬리를 배출, 그로 하여금 온 세계를 향하여 성령의 뜨거운 불을 지필수 있도록 하는 감리교 운동의 요람이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은 넘보라살도, 넘 빨강살도 보지를 못 합니다. 그러니 볼 수 있는 것 보다 볼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또한 사람이 귀로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Audio Frequency)는 19 Hz 에서 20,000 Hz 까지만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들을 수 없는 소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 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고 듣는 것 만 해도 극히 제한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Pascal이, ‘난 지구가 자전하며 공전하는 웅장한 소리를 듣고 있다’라고 말 할 때 그를 이해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었겠습니까?

그렇게 모든 면에서 극히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죄악의 뿌리가 깊은 인간들은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 다스려야 비로소 만족하는 불쌍하기 이를 데 없는 교만한 존재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데, 참 주인이신 주님을 밀어내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 했다고 말은 합니만 여전히 자기 뜻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산다고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삶의 중심에는 주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영성이 깊은 Susanna는 이 점을 깊이 간파 하였고, 이는 오로지 영적 훈련으로 인해 해결될 문제라고 확신 했고 이를 자녀교육에 접목, 그대로 실천 했습니다.

‘생각’ 부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수 있도록, 글을 읽을 수 없는 어린 아이들 부터 영적 교육을 시작, 가슴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였고, 젖을 떼자 마자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시작 하였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사시는 삶을 훈련 시키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약해 있으면 매일 매순간 틈을 타 역사하기를 쉬지않는 사탄/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 밖에 없음을 알게하는 신앙교육을 쉬지 않았 습니다. 그리하여 영성이 뛰어난 어머니로부터 영적 교육을, 목사 이면서 문학과 예술에 뛰어난 아버지로부터 인문학 배경을 골고루 훈련 받으며 자녀들, 특히 요한과 찰스는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겨우 회심에만 그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1738년의 'Aldersgate 사건'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몸과 영혼속에 박혀있는 어머니의 '매일매일' '날마다'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계속해서'의 원칙이 그의 성장을 멈추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 1739의 노방전도와 옥외설교로 이어지게 되어, 모든 영적활동은 교회 안에서만 행해져야 하고 이를 어기는 자는 신성모독자라 한 성공회의 울타리를 과감하게 뛰어 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 Bristol에 New Room을 건축 하여, 노방전도와 옥외 설교의 중심지로 삼았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들을 함께 살면서 길러 내셨던 모습을 본받아, 평신도 지도자들을 그곳에서 함께 생활하며 양육 배출해 냈습니다. 그야말로 Methodist Movement의 엄청난 불꽃이 거침없이 불 타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Susanna Wesley의 일생이야 말로 '위대한 출산'의 생애였습니다. 오늘날 사람들 기준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출산'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두 19명의 자녀를 낳아 기르다 9명의 자녀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는 슬픔을 가슴에 묻고, 주로 10명의 자녀들과 함께 일생을 지냈습니다. 조그마한 시골 교회 목사의 박봉으로 생활하기가 어려웠지만 언제나 믿음으로 가정을 구김살 없이 이끌고 나아 갔습니다. 18세기 만연했던 '지배와 군림'의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도, '사랑과 화해' '관계와 용서'의 깊고도 깊은 영성훈련으로 가정을 이끌어 나아 갔습니다. 이 위대한 어머니의 빛나는 신앙이 자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Wesley 가정은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하늘의 평화가 항상 잔잔히 흘러 넘쳤습니다.

신앙은 습관입니다. 이제 긴 행로를 막 출발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 주기 원했던 이 훌륭한 어머니는 그 가장 좋은 선물을 다른 데서가 아니라 삶의 한

복판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최고 사령관으로 모시고 친히 그가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승리를 거두는 체험의 삶이 습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길이 연약한 인간이 가장 강하게 되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녀의 신앙은 분명 했습니다. 문명 세계를 떠나 식민지의 열악한 환경으로 선교사로 떠나는 아들을 향해, '나에게 20명의 아들이 더 있다해도 모두 선교사로 보냈을 것'이라고 말 한적이 있을 정도로 그 분의 신앙은 확고 하였던 것입니다.

Susanna는 1669년 생, 어렸을 때부터 총명하여 그가 10살 되었을때 벌써 3개국어(히랍어, 라틴어, 불어)를 유창하게 구사, 신학책을 탐독하기 시작 하였고, 13살 때는 깊은 신학적 사고로 신학 토론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19살에 결혼한후 아이들에게 일찌기 히랍어를 가르칠 수 있었으며, 그렇게 훈련받은 아들 John이 Oxford Holy Club을 시작할때 맨 처음한 일이 히랍어로 성경을 읽은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Susanna는 기독교의 '대신의 원리'를 꿰뚫은 영리한 여성이었습니다. 자기에게 허락하신 가정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임을 분명히 했고, 자녀들을 주님과 분명히 동행하는 삶을 영위하도록 기꺼히 자기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바치었던 것 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헌신적인 신앙교육이 어린 자녀들의 가슴을 뜨겁게 태우는 불이 되었던 것 입니다. 그 녀에게 가장 기쁜 것은 자기 자녀들의 가슴 속에서 순종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 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 못하는 것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순종할 때에야 비로소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불타기 때문입니다. Susanna의 'Doing Theology'의 시작은 언제나 '삶의 현장' 이었습니다. 그 당시 서유럽에서 만연 했던 '관념'의 두꺼운 벽을

뚫고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신학자의 이름을 들먹이며 그들의 고매하고 고상한 신학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일의 삶이 언제나 그의 '신학함'의 한 복판이었으며 회개와 혁신의 중심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을 내어 자기 의와 주장을 펼치는 잘못된 열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로 뜨거워짐으로 기꺼히 희생제물이 되는 올바른 열심 이었던 것입니다.

그 녀는 자기의 자녀들과 함께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었으며, 남편이 London으로 출타 중일 때는 본인이 사람을 모아 집집 설교 하여 '평신도 설교자'의 모범을 보여 주었던 것입니다. 목사관의 주방은 그 녀의 설교단 이었습니다. 후에 John은 Methodist Movement에 이를 도입하여 평신도 전도자를 양성 했으며, 오늘날 까지 이 전통은 특히 감리교 안에 살아있어 Local Pastor 제도가 운영 되고 있어 수많은 평신도가 교회지도자로서 사역하고 설교할수 있는 실정 입니다. Francis Asbury 같은 평신도 전도자가 없었던들 어찌 미국에 복음의 빛나는 역사가 시작이나 하였겠습니까?

아! 기독교 교회사에 이렇듯 팔목할 만한 여인이 있었던 말인가?

우리 모두가 흠모하고 있는 성녀, Susanna Wesley를

명실공히 Mother of Methodism이라 일컬어도 아무 손색이 없을 줄 믿습니다. 특히 현대 인간사회의 강조점은 외적으로의 창출과 성취에 있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는 '결과'만을 중요시 하여 부귀영화, 성공, 권력, 명성, 인기 등이 거짓 신들이 되어 마음/삶의 중심에 군림하고 있는 부패한 모습을 회개하고, John Wesley의 Methodism Movement의 불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종교개혁주일을 지키고, 마음 중심에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거룩한 성탄절을 맞이 합시다. Hallelujah!



수필

기상 이변의 주범



이정길

수필가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탄소는 자연계에서는 암석 중에 탄산염으로, 대기권에는 이산화탄소(탄산가스)로 존재한다. 산업화한 경제의 추진력인 석탄, 석유, 천연 가스 등의 화석 연료에는 수억 년 전에 식물이 대기에서 흡입한 탄소가 들어 있다. 그 연료가 타면 탄소는 연통이나 배기관을 통하여 다시 대기로 돌아간다. 대기 중의 탄소 약 절반은 삼림, 목초지, 바닷물 등 소위 ‘탄소 싱크’를 통하여 제거되는데, 나무나 각종 식물 그리고 플랑크톤이 흡수하여 생육에 이용하고, 물속에서 사는 연체 동물들이 석회질 껍질을 만드는 데에 사용한다. 탄소는 아주 근사하면서 기본적인 지구의 거대한 연동 장치를 순환한다.

관심을 가지고 지구의 온난화를 이해하려면 숫자에 밝아야 한다. 백분비에 익숙한 우리는 평소에 %를 사용한다. 그러나 물질의 아주 낮은 함량을 나타내는 데는 백만분비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산업 혁명 이전의 대기에는 탄소가 280ppm 정도 함유되어 있었다. 백만분의 몇에 해당하는가를 나타내는 ppm은 성분이나 농도의 단위이다. 주로 물이나 흙 또는 공기 중에 들어 있는 물질의 미세한 양을 표시하는 데에 쓰이는데, 1ppm은 물 1리터에 어떤 물질 1밀리그램이 들어 있을 때 즉 1mg/l에 해당된다.

유기 화합물의 원소로서 생물체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기도 한 탄소의 분자 구조는 열을 빨아들이게 되어 있어서, 열이 대기권 밖으로 발산되는 것을 막아 준다. 산업 혁명 이전의 대기의 탄소 함유량 280ppm은 지구의 평균 기온을 15°C내외로 유지시키면서 기상 변화에 초래하지 않아 ‘좋은 수준’으로 간주된다. 생각하건대 인류 문명의 양식은 그 온도에 맞게 발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도시를 건설하고, 농작물을 재배하며, 계절의 변화를 설정하는 등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추었던 것이다.

인류가 삶을 영위하기 위해 화석 연료를 태우기 시작하자 대기 중의 탄소 함량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측정을 시작한 1950년대 후반에는 315ppm이었으나 2007년에는 380ppm으로, 해마다 대략 2ppm씩 증가했다. 양이 미세해서 대단해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지표면의 열이 1제곱미터 당 몇 와트만 올라가도 지구는 상당히 더워진다. 벌써 지구 온난화가 얼음을 녹이고, 계절이나 비가 내리는 양태를 크게 바꾸며, 해수면을 높여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기 시작했다. 인류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나무가 타면 탄소가 유리되어 대기로 돌아간다. 차에 시동을 걸고, 전등을 켜고, 향온 장치를 조정하는 등 일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 사람은 탄소를 배출한다. 미국인들은 한 사람이 한 해에 5톤 이상의 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그리고 세계의 인구 80억이 대기로 뿜어내는 탄소의 양은 한 해에 80억 톤에 달한다. 소, 무논, 쓰레기 매립지 등에서 배출되는 메탄가스, 냉장고나 에어컨에서 나오는 냉각제 등 각종 온실 가스에 비해 탄소는 열을 흡수하는 능력에 있어 단연 제1급이다.

재앙이 닥치는 시점을 암시해 주는 분명한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최근까지 대기 중의 탄소 함량이 얼마에 달하면 어떤 징후가 나타날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제는 전과는 다르다. 갈수록 심해지는 날씨의 변화와 수년래에 측정한 일련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시점은 450ppm이 되는 때다. 비록 메탄 가스나 아산화질소 등은 고려되지 않아서 완전할 수는 없으나, 매년 2ppm씩 증가할 경우 삼십여 년이면 그 함량에 도달할 것이기에 먼 훗날의 일이 아니다.

탄소의 배출을 신속하고 지속적이며 효과적으로 감축해야만 예상되는 재앙을 막

을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2004년에 프린스턴 대학의 연구원들이 기본적인 탄소 고정화 방법 15가지를 학술지 Science에 발표했다. ‘썰기’라고 표현한 그 방법들은 대부분이 확실하게 효과를 나타내며 이미 사용되는 과학 기술이다. 연료 효율이 높은 자동차의 개발, 재생 에너지 생산의 증가, 산림 벌채의 중지, 경작 면적의 축소, 생물 연료 사용 등 그 중 몇 가지는 어렵지 않은 방법들이다. 그러나 석탄 발전소를 건설하되 거기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에서 탄소를 분리하여 지하에 매장하는 방법은 실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른다. 썰기 모두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한층 더 어렵고 비용도 더 든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모두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 사용하지 않는 전기 기구의 플러그를 뽑아 두고, 자동차 운전을 줄이며, 되도록이면 육류를 적게 먹는 등 일반인들도 지구를 돕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그래도 커다란 집에서 커다란 TV를 가지고 살고, 홀로 차를 운전하며, 비행기 여행을 즐기는 따위의 고정된 습관을 고치기는 만만찮다.

기후의 변화는 천천히 물을 채우는 욕조에 비유되기도 한다. 물이 방울져 떨어지게 해 놓아도 끝내 욕조는 넘치게 마련이며, 그것이 곧 우리가 막아야 할 재앙이다. 무자비한 기후의 유린은 결코 막아야 한다. 탄소 제로 상태에 도달하려면 탄소를 배출하는 모든 경우를 철저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과학 기술의 개발과 생활 양식의 변화가 기대를 가지게 하지만, 신속하고 단호하게 밀고 나갈 때만 가능한 일이다. ■

선교

종말 세대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까전서 4장 16,17

이 구절을 분명히 사도 바울이 서술한 휴거(Rapture)에 관한 기사로서 종말 시에 각 개인이 일어날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Corona Pandemic(코로나 범유행)이 일어난 지 벌써 2년 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변이가 나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세계 3대 곡창지대의 하나인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8개월째 계속되고 있고 러시아의 푸틴은 핵을 운운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은 Armageddon(아마겟돈:요한 계시록 16장 16절에 나오는 세계 종말의 전쟁터)을 말하고 있으니 세계 3차 대전이 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1991년 Soviet Union(소련)이 붕괴 시 러시아의 유대인 1백 오십만이 이스라엘로 Aliyah(이주, 귀환)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6만 이상의 유대인이 modern exodus(현대판 대탈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8 절의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절박함을 느낍니다.

마지막 무화과나무의 최종 세대인 우리가 미혹과 배도로서 잠자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특히 Christian(기독교도) 들을 깨우는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할 사명이 막중합니다. (마태 24:5, 이사야 62:6) 현재 이 지구상에서 180여 개 국가에 한국인이 있는데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8백만 세계만방에 있는 Diaspora Korean(흩

어진 한국인) 들이 마지막 복음 주자로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 하나님 말씀의 예언대로 성취됨을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새로 탄생 한 때에는 Christian Church(기독교 교회) 가 하나도 없었는데 현재 (2022년 10월) 93개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기적이고 하나님의 Timeline(시간표)이고 주님의 재림이 Imminent(임박)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YouTube(유튜브) 코뿔소 TV World Bridge Mission(월드브릿지미션), International 서울 김포 영광교회 담임 박영민 목사님의 미주 순방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오셔서 아틀란타, 필라델피아, 뉴욕, 뉴저지, 로스엔젤러스,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합니다.

LA에서 12월 첫주 12월4일 박목사를 만날 계획인데 관심있으신 분은 뉴멕시코주 신경일 (505-297- 9969) 목사에게 연락 바랍니다. 박목사님은 신유의 Power가 대단한 분이시고 30여년의 목회 생활에서 수많은 병든자를 고침 받게 하였고 지난 3년동안 종말설교와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히 증거하시고 계신 분입니다.

한국 청소년에게 보내는 메시지!

My Korean Youth!

As a Korean retired pastor, I am very pleased to give this message for my beloved Korean youth in this day of chaotic world. I personally praise for your hard work to help your family, study hard to keep up with fast changing Technology. You may have the thought of everyday's routine things. Every Sunday church is boring. It is just for old people. Nobody really believes that stuff. Second coming of Christ is not possible. According to a 2020 Gallop poll, church membership

신경일
목사

(전)UNM병원Chaplain
Los Alamos Medical
Center 근무



in the U.S. has declined more dramatically in the last 20 years.

I strongly believe that God loves each person fiercely, relentlessly and unconditionally that the life of death & resurrection of Jesus are relevant today. Church does not have to be boring. It is not just for old people. but also all the people. According to Timothy 2:4. 'God wants all men to be saved and to come to a knowledge of the truth. How about Ukrainian war? That is God's plan & Kyros in order to bring Jewish people in Ukraine back to Israel.

Since the war began, more than 60,000 Jewish people are fleeing to Israel. Mostly Christian Jews. Praise God. We have to pray for Ukraina of peace and safety. We are proud that Korea is #2 missionary country after the U.S. Comfort the Korean people especially our parents. In 1950 Korean was started, millions peoples died, war stricken, poor, separated 2 parts north and south. Look at the amazing prosperity of south. That is surely Christianity, our parents struggle, hand work, tears, serving God, and U.S. support for the democracy. We should be thankful. Thank you for giving me such a loving parents. Sometimes we did not understand their hearts. Forgive us now. Get rid of useless argument, my disobedient attitude. Please help us not to dispute over the same issue again.

Be positive, be happy. Don't have negative thinking. Rely on God's side. Honor your father & mother so that you may live long in the land God is giving you (Exodus 20:12). God bless!



수필

'못 믿겠는데요'의 하나님



나정자
연합감리교회
은퇴 감리사 사모
/ 수필가

‘애, 지금 너 뭐 먹고 있니?’
‘네, 대붕 먹고 있는데…들켰네!’
지난번 요란했던 태풍 힌남노 비바람에 잘
익어가던 틈실한 대붕들이 마구 떨어져서
대충 좇아다 별 잘드는 밭코니에 놓았더니
제법 먹을만큼 익었다는 친정동생의 목소
리는 잘 익은 대붕만큼이나 달았다. 금방
터질듯 소담하게 잘 익은 대붕들이 눈 앞
을 왔다갔다 어른거리는가 하면, 사통팔방
익어가가는 가을은 그대로 성큼 축제요 하나
님의 뱅꺨이다. 빨갛게 노랗게 찬란하게…
버스럭!버스럭! 투다닥!투다닥! 귀뚜라
뚜… 우수수수… 부산하다.
10여분 걸리는 허드슨 강가로 나갔다. 따
끈하고 화창한 날씨는 마치 한바탕 무슨
상받은 기분이었다. 차 창문을 열어 놓고
자리하니, 강 건너 노오란 갈잎 풍경이 그
대로 그림이고 별천지다. 마침 차 앞 강변
로를 깡마른 노익장 한 분이 지나신다. 꾸
부~정 에 책 한권을 안고 가신다. 노인은
같이 가는 이 없어도 그리 외로워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동행하는 책이 있어서 일
까? 노인이 책을 끼고 가시든 등에 지고
가시든 나 하고는 아무 상관인 없는 일이
건만 고연히 쓰잘데 없는 생각들이 꼬리
를 잇는다. 아마도 여물어 가는 가을 때문
이리라.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마치 반성문 쓰
라는 숙제라도 받은듯, 나름대로 부지런히
살아 온 한 해를 돌아보게 되곤한다. 뭐 좀
허우적 거리기는 했어도 건강검진 하듯 하
나씩 둘씩 짚어가다 보면 다 힘들고 서글
프고 후회스러운 것만은 아니었다 싶어 칠
푼이같은 희비가 죽끓듯 한다. 우습기도
하구 신묘막측하기도 하구 엉뚱하기도 한
일들이 수두룩이다. 모처럼 보이는 세상과
보지 못 하는 세상도 분간해 보게되니, 이

또한 여물어 가는 가을 때문이리라.
내 시아주버님(남편의 형님)께서는 학교
를 졸업하시고 유학하신 기간을 빼고는 본
교 금속공학과 교수로 평생을 외길로 사셨
다.(당신 말씀으로는 ‘나는 뺏속까지 주물
인이었다’ 대한금속.자료학회 창립 70주년
기념 회고록 중에서)
그는 그의 제자중 한 사람을 내게 소개하
셨다. 아주 괜찮은 청년이라고 하셨다. 내
친정 여동생이 학교를 졸업하고 본교 도
서관 사서로 있을때 신랑감으로 추천하시
는 것이었다. 기독교인이 아니었기에 주
춤주춤 했었으나…두 사람은 결국 결혼했
고. 말릴 길없는 세월은 싫던 좋던 상관없
이 주문한 적 없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안
겨주고 또 여전히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시 물고 간 지가 여러해 되었을때, 교회
에서는 이 젊은이(동생의 남편) 에게 세례
문답을 하자고 연락이 온 것이었다.
주일날이면 아침 일찍부터 테니스 코트로
방향을 잡던 김서방에게 세례문답 이라니?
그렇지라도 아내의 성화에 밀려 오늘은 단
번에 번개같이 문답지 예습을 마치고 정해
진 문답장소에 나가더라나.
첫번째 질문 :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으
십니까?’
거침없는 대답은 ‘아니요. 못 믿겠는데요.’
였단다.
그러지 않아도 남편의 황당한 대답에 한심
하여 통부러져 오는 길이었는데, 그는 또
한 술 더 떠서 ‘세례받으면 십일조를 해야
한다네’ 하더라는 것이었다. 그러지 않아도
십일조 라는 현금을 이해할 리없는 남편한
테 혹이라도 걸림돌이 될까싶어 감사헌금
이란 명목으로 현금하고 있던 터인데…
이 거칠것 없는 대답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에게 눈을 꾸욱 감아 주셨던걸까? 아니 그

마음을 다듬어 쓰실 만 하셨던 것일까! 무
론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
고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누구에
게나 그렇듯이 그에게도 하나님 앞에는 순
수하고 솔직하여 자유롭고 싶었던가 마음
을 트더라는 것이었다.
“ 나는 말씀도 잘 모르고 당신도 아다시피
부족한게 많은 사람이잖아.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겠소. 난
아직 아무것도 할 수 있는게 없어요. 그러
나 돈으로 할 수 있는 거라면 그건 할 수 있
지 않을까? 온전한 십일조 말어요. 당신 말
대로 세금을 제하기 전인지 후인지 난 모르
지만 그것 십일조 라는 거 그거 하나만이라
도 제대로 해 보고 싶은거요.” 하더라나.
심중에 깊이 깊이 품고 있었을 지라도 언젠
가는 후련히 쏟아내야 하는게 사람이다. 그
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잘 웃을수 있는 까닭
이다. 그렇지 못하면 못 고칠 마음병에 시
달린다던지, 속터진 늙은 나무뿌이를 찾아
가야 하는 또 하나의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 사건이 될 수 밖에! 느닷없이 쏟아내
는 진솔한 고백에 가슴이 철렁! 콩나물 시
루엔 제대로 물붓기만 하면 되나 보다.
뿐만 아니라 ‘못 믿겠는데요’ 를 포기 또는 보
류 하지 않으시고 세례를 베푸신 하나님께
서는 그를 주일 날에는 떨어진 웃고름도 껴
매지 않는다는 고신
(고려신학과) 장로교회 장로로 세우시고,
굴지 교회 건축의 수고를 맡기셨으니 과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엉뚱 정도가 아니
라 신묘막측이 아닌가!
우리는 참 많이 모르고 많이 다름속에서
산다.
대낮과 한 밤중 생각이 다르듯
환경과 공간에 따라 다르듯
교회를 통해서 수고하는 자와

교회밖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자의 마음이 다르듯이
청년기와 노년의 입장이 다르듯
며느리 와 딸의 입장이 다르듯
생각과 표현방법이 다르듯이 ...
그러나 그 여러 다름 안에 똑같은 거 있으
니 영원을 사모하는 눈물과 웃음이 있고
그리워 하며 온유하며 용납하며 가슴 철렁
하는 감격이 있으니... 다 하나님의 품성이
다. 뿐이라, 그 품성이야 사랑 즉 오래 참
고 무례히 행치않고...라 하셨건만. 우리는
흔히 신앙적 이라고 하면서도 어떤때는 엉
뚱하게 타산적이고 편협해 저서 그저 쉽게
단정해 버리고 포기해 버리는 실수를 저지
른다. 그래서 일까? 손으로 만져지고 눈으
로 보여져야 하고 숫자로 계산 내지는 증
거되어야 하는, 매우 물리적인 삶에 쉽게
길들여 지고, 또 그것이 우선시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그 '못 믿겠는데요' 장로님 애
기가 심심치 않게 주변 틈바구니를 돌아
다니며 여태까지 못 에피소드로 등장되고

있다는 거다. 외길 스승이 추천한 그 제자
도 어쩔수 없이 '그 스승에 그 제자' 란 말
을 들을 수 밖에 없었던가? 교회건축중에
도 혈령물령한데 라곤 없이
원리원칙만 고수한다고, 크게 잘 못 감수
하는 것도 없건만 입 팔매도 많이 맞았다
는거 아닌가. 감사헌금과 십일조 틈바구니
에 끼었던 내 동생의 속터지는 눈물을 보
는듯 하다. 그러던 중,
'공은 절대 기다리는 방향에서 오지 않더
라' 던 어느 축구 골키퍼의 회고 한마디에
이 초로의 속내에서 스멀거리던 것이 틈을
얻었나 두어가지 땀글을 내민다.
그랬다.
나와 다른 것이 많아서 살아 볼 만한 세상
이었다.
나와 다른 것이 많아서 감히 하나님의 사
건들을 경험해 볼 수 있었다.
나와 다른것이 많은것은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 지고 있음이라고
새벽 미명이면 칠흠같은 어둠속에서 질러
대는 풀벌레들의 땀세지에 홀가분하고 신

명나는 하루하루가 시작되곤 하지 않았던
가!
나와 너를 다 다르게 만드신,
김서방과 내 동생을 다르게 만드신,
영뚱한 방향에서 날아오는 공으로 비범한
명수를 키우시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설계 하신대로 엔진도 브레이크도 핸들
도 없는 방주로도 그 큰 홍수 물난리속에
서 순종하는 생명들을 보존하시고 구원해
내신 분!
별거벗겨 십자가에 달린 외아들을 풀어 내
리지 못 하신 하나님!
고연히 뻗뻗한 우리를 앓게도 하시고 서게
도 하시는 분!
물이 흐르게도 하시고 물이 서 게도 하시
는 분! 그 하나님께서는
나 만의, 또 우리들의 '명 연기'를 기대하며
기다리시기에 올해에도 이 광활하고 찬란
한 무대를 펼치시는가 보다. 할렐루야!
주여! 우리 모든 영혼이 삶으로 주를 찬양
케 하옵소서. ■

“하늘도 땅도 열기구 천국” ...미 앨버커키 열기구 축제

한국의 KBS, MBC 뉴스에서는 지난 10월
첫주에 이곳에서 열린 알버커키 인터내셔
널 발룬 피에스타를 아래와 같이 소개했
다. 아래의 글은 KBS에서 방송한 내용의
일부이다.

〈이곳은 미국 뉴멕시코주 앨버커키에서
매년 10월 첫째 주부터 시작되는 국제 열
기구 축제입니다.

축제가 처음 열렸던 1972년에는 단 13개
의 열기구만 모였지만 지금은 매년 평균
600개 이상의 열기구와 7백 명이 넘는 조
종사가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열기구
축제로 성장했는데요.

50회째를 맞은 올해 축제에는 스위스, 호
주, 브라질 등 전 세계 20여 개 국가가 참



여했고 9일 동안 이곳 상공을 수놓는 열기
구들의 향연을 보기 위해 100만 관중이 몰
려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의 사진은 MBC방송에 나온 영상을 캡
처한것이다. ■

신간 서적

'나 말고 그리스도'- 신간소개

찰스 W. 프라이스 저 'Alive in Christ'의 번역본 <나 말고 그리스도>가 출간되었다. 알버커키에 거주해오다가 최근에 시애틀로 이주하신 이유신 씨가 시애틀 온누리교회·자비와 은혜교회에 출석하는 오승욱, 박은경, 이창규 씨와 함께 공동 번역하여 출간한 책이다.

원저자인 찰스 프라이스는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세계 1백여 국가에서 설교 사역을 해온 목사로 글로벌 선교 프로젝트를 통해 인도주의적 봉사를 펼친 공로로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수여하는 '다이아몬드 주빌리 메달'을 받기도 했다. 이 책에서 프라이스 목사는 신앙생활의 주체가 나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함'을 설득력있게 제시하고 있다.

도서출판 훈훈이 발행한 286쪽의 이 책은

1. 미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일 때
2. 상자 안의 하나님-언약계
3. 만족을 주지 못한 선물-만나
4. 믿기를 거부하다
5. 짝이 난 아론의 지팡이
6. 네 손에 있는것이 무엇이나
7.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셨을까?
8. 계명이 약속이 되다
9. 행동에 이르는 길
10.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11. 비밀을 찾은 사람들

등의 11개의 소제목들로 이루어져 있다.

역자는 서문에서 네 명의 평신도를 통해 이 책을 번역하게 하심은, 이 책의 내용이 쉽게 전달되어서,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말씀이 크리스천들에게 익숙하기 만한 종교적인 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의 삶 속에 주 예

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고, 그래서 온 세상이 크리스천들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다고 전한다.

이책을 미국에서 구입할 경우에는 반디북 US(www.bandibookus.com)에서 가능하며 한국에서는 Naver(www.naver.com)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광야의 소리'는 번역본 출판의 리더 역할을 하신 이유신 집사와 인터뷰를 통해서 책 발간의 배경 스토리를 알아보았다. 이유신 집사는 1997년부터 2015년까지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에서 피아노 반주자로 봉사하셨었다.

1. 이 책을 번역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실까요?

2020년 6월 동생이 “누나, 책 한권 보냈어. 읽어보세요”하며 문자를 보냈습니다. 책의 내용이 너무 좋고 읽기도 쉽게 쓰여져 있어서 ‘깊이 있는 내용을 이렇게 일상적인 말로 쉽게 설명할 수도 있구나!’하는 감탄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동생과 동생댁, 후배 그리고 저) 의기투합해서 번역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2. 표지 디자인이 휴대폰을 연상하게 하는 특이한 디자인입니다. 두개의 버튼, 'I' 와 'Christ' 에 대해 설명을 해주세요.

원제가 “Alive in Christ” 인데 우리는 “나 말고 그리스도”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Not I but Christ”라고 생각하다가 번역본이니 그냥 우리말로 “나 말고 그리스도”로 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휴대폰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은 “I” 는 끄고 ‘Christ’



는 켜라”는 뜻으로 젊은 세대에게 어필하기 위한 디자인을 사용했습니다.

3. 네분이 공동으로 번역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각각 맡은 chapter 들을 번역했고 그 다음에 한 chapter당 두 명씩 감수하면서 의견을 나누고 고치고 또 고치는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네명이 각각 다른 장점들을 갖고 있어서 번역하는데 동기부여도 되고 서로 힘이 되어서 어려운 점은 별로 없었습니다. 수정 작업 후에는 제가 총괄해서 체크스타일로 통일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번역을 하며 제가 느낀 것은 저 빼고 나머지 3명은 각자 전문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매일 저녁 3시간 정도를 번역을 위해 다시 책상 앞에 앉는 것을 보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대단하다고 감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번역하는 동안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고 일과 연구로 가득했던 머리 속이 그 시간들을 통해 비워지고 오히려 새 힘을 얻

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 그리고 내주하시는 주님의 이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4. 이 책의 어떤 부분이 번역하면서 가장 마음에 감동을 주었나요?

책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돌아서서,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살 수 있음을 인정하며,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인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약함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빈곤함을 예수님의 풍요로움으로 바꾼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삶으로 바꾸는 것이다.”

5. 번역 후의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여름부터 Charles W. Price의 Alive in Christ라는

책을 읽고 번역하면서 집에만 있던 답답하던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좋은 책을 통해 너무 의미있고 귀한 시간으로 보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 우리 하나님은 어쩔 이렇게 좋으신 분일까!’ 감탄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일을 통한 성공, 재산, 건강, 자식들.. 우리가 우상으로 삼길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 제일은 아마 자기 자신일 것입니다. 우리 안의 주인 자리를 하나님이 아닌 내가 차지하고 앉아 ‘내 생각에는...’ 하며 모든 일들을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내가’가 앞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갈라디아서 2:20a)는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넘어서야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려면 성경 말씀을 통해 보여지

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하고 이 땅에 오셔서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마음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병든 자, 귀신들린 자,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이 책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이 우주의 먼지보다 작은 존재인 우리 인간을 사랑 하셔서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시편 8:1, 3-4) 다윗의 시편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

음악이 치매 예방에 도움된다

콜럼비아 의대 뇌신경과학자인 올리버 색스 교수는 그의 저서 ‘Musicophilia’에서 “음악만큼 강력하게 뇌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없다. 음악은 우리를 진정시키고 활기를 주고 위로할 뿐만 아니라 뇌질환 치료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발표, 관심을 끌었다.

지난 2017년 보건연구원(NIH)이 케네디 센터와 협력해 실시한 연구결과도 흥미롭다. 미국의 세계적인 소프라노 르네플레밍이 피실험자로 참여한 이 연구에 따르면 플레밍이 노래를 할 때 뿐만 아니라 노래를 직접 부르지 않고 노래하는 것을 상상만 해도 뇌가 활성화되는 것을 과학적으로 규명해냈다.

실제로 음악을 환자 치료에 이용했을

때 좋은 결과를 보이는 사례들이 점점 더 많이 보고되고 있다. 지난 2011년 애리조나에서 일어난 총기난사 사건으로 심각한 언어장애를 겪었던 개비 기포즈 전 하원의원이 음악치료를 통해 다시 말을 하게 되고 언어능력을 회복하게 된 것이 그 좋은 예다.

음악은 알츠하이머로 기억력과 언어 능력에 문제가 생긴 치매 환자의 경우에도 매직 파워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해 8월 열린 토니 베넷(95)과 레이디 가가의 공연이 대표적인 경우다.

이 공연은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베넷의 마지막 공연이었다.

그런 베넷이 알츠하이머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건 2016년이였다. 알츠하이머가 진행

되며 인지능력/기억력에 문제가 심해졌고 오랫동안 음악을 같이 해 온 동료 들 그리고 같이 공연하는 레이디 가가조차 기억하지 못하다가 공연때 음악이 흘러나오자 너무나 또렷하게 레이디 가가를 기억해 냈을 뿐 아니라 멋지게 공연을 소화해 냈다.

음악이 가진 이 놀라운 능력, 알츠하이머 치매가 상당히 진행되더라도 음악 기억은 보존되는 것을 이용해서 치매 환자와 환자 케어에 적용하는 연구도 활발하다.

뇌에 좋은 자극을 주는 음악, 지금부터라도 좋아하는 음악을 많이 듣고 나만의 뮤직 & 메모리 리스트를 만들고 친구들과 같이 정기적으로 노래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

참고:SNUAA in the USA, 2022.9Vol. 341

생활영어

영어이야기 23

달력(Calendar) 이야기



이상목

전자공학 은퇴 교수
아마추어무선사
(K7MOK)

말입니다.

달력을 보면 7, 8월은 연속으로 31일이고, 일년의 일곱달이 31일, 녀달이 30일, 2월 한달은 28일로 되어있어 2월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달력에 대해 한번 여행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관측하기 제일 쉬운 천체가 달(moon)입니다.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달이 뜨고지는 시간과 초생달, 반달, 보름달, 그믐달을 거쳐 반복하는 달의 주기를 한달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moon과 한달을 나타내는 month는 어원이 같습니다. 달의 모양이 29.5일마다 반복되고 이것이 12번 반복되면 일년이 지나 4계절이 반복되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고대 로마에서 태양에 기준을 둔 달력을 만들었던 당시엔 10달이었는데, 두달은 겨울철이라 할일이 별로없는 계절이라 신경을 쓰지않아 봄이 시작되는 3월부터 달(month)을 계산하였습니다. 그후 지구의 태양주기를 정확하게 계산함에 따라 나중에 두달을 보태게되어 지금의 12달로 되었습니다. 달을 중심으로 한 음력과도 오차를 많이 줄이게 되었습니다. 달만 보고 12달이 지나면 일년은 $29.5 \times 12 = 354$ 일이 되어 지구공전주기 365일보다 11일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음력은 2년5개월~2년10개월마다 윤달(leap month)이 있습니다. (19년마다 7번 윤달) 참고로 달이 지구를 한바퀴도는 시간은 27.3일입니다. 그러나 보름달에서 다음 보름달까지 걸리는 시간은 29.5일입니다. 지구가 가만히 있는것이 아니라 태양주위를 공전하기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지구의 태양공전주기일 계산한것을 보면, 1079년 계산은 365.2421985..., 현재는

365.242190... 거의 비슷합니다. 당시엔 천동설을 믿던 시절이라 1년계산을 낮과 밤이 같아지는 춘분에서 다음 춘분까지 (또는 추분에서 추분까지)를 측정하여 1년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시 똑같은 날로 돌아온다해서 “turn”의 뜻을 가진 그리스어의 “tropical”을 따서 1년을 “tropical year”라 부릅니다. (solar year라고도 함) 처음 10개의 달(month)이름중 5번째달부터는 숫자를 붙였는데, 봄부터 세기 시작하여 첫달은 전쟁의 신 Mars에서 March로 명명했고, 둘째달은 April로 나무들이 기지개를 펴며 나오는 “open”의 뜻인 “Aperire”가 어원이고, 셋째달은 May로 산천초목이 자라는 “자람(growth)”의 여신인 Maia에서, 넷째달은 June으로 로마신 Juno의 이름에서, 5번째달은 Quintilis(5th month), 6번째달은 Sextilis(6th month), 7번째달은 September(7th), 8번째달은 October(8th), 9번째달은 November(9th), 10번째달은 December(10th)로 숫자와 글자의 뜻이 맞아떨어졌지만, 새로 보탠 두달을 처음엔 December뒤에 넣었지만, 후에 January와 February를 앞에 놓음에 따라 두달씩 밀려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은 8을 뜻하는 October, 11월은 9를 뜻하는 November, 12월은 10을 뜻하는 December로 사용하게되어 글자와 숫자가 일치하지 않지만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octo-”가 8임을 나타내는 단어로, “octave”(한 옥타브는 8음), “octopus”(문어)는 다리가 8개입니다. January는 새해를 맞이하므로 “God of Doors”인 Janus에서 이름을 따왔고, February는 희생과 정결을 뜻하는 “februo”에서 나온

우리의 조상들은 매년 되풀이되는 4계절의 시기에 오차가 있는것을 알고 끊임없이 윤달을 두어 달과 절기가 잘 맞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음력은 태양의 움직임도 염두에둔 태음태양력(lunisolar calendar)인데, 날짜계산은 달의 차고 기움을 보고, 계절변화는 태양움직임에 기초하였습니다. 태양에 기준을 둔 양력은 고대 이집트인이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의 두번째 왕인 Numa Pompilius가 좀더 정확한 달력을 만들기위해, 12번을 반복하는 달(moon)에 기초한 음력과 보조를 맞추기위해 일년을 355일로 정하고 10달이었던(총 304일) 일년을 두달을(January와 February) 보태어 12달로 만들었습니다. 한달을 29일 또는 31일로 12달을 만들다보니 한달은 짝수(even number)일이 되어야 했습니다. 당시 로마사람들은 짝수를 재수없는(unlucky) 숫자로 여겼기 때문에 어느달을 짝수로 할것인가 생각끝에 새로 보탠 1월과 2월중 2월(February)을 택해 2월이 28일이 되었습니다. 일곱(7)달은 29일, 녀(4)달은 31일, 한(1)달은 28일, 도합 355일이 됩니다. 한달을 30일로 정하게 된것은 달의 주기가 29.5일이기 때문입니다. 로마황제 Julius Caesar(줄리어스 씨저)때 좀더 정확한 공전주기 365.25일을 기준으로(355일보다 10일정도 많아짐), 새로이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1582	OCTOBER					1583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세월이 흐르면 일년이 딱 맞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루를 더하는 윤년(leap year)도 두었습니다. 일년 365일을 12개월로 공평하게, 6달은 31일, 또다른 6달은 30일로 하면 도합 366일이 되어 365일보다 하루가 많게 되어, 5달을 30일로 하고 2월을 29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7월을 써저의 이름인 Julius에서 따온 July는 31일인데, 다음 황제인 Augustus가 자기의 이름을 딴 August(8월)를 자기도 31일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30일이었던 8월이 31일이 되는 바람에 2월은 하루가 줄어 다시 28일로 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있는 양력은 그후 윤년(leap year) 계산을 좀더 정확하게 보완한 1582년 교황 Gregory13세때 제정된 Gregorian calendar입니다. 우리나라는 1896년에 양력인 Gregorian calendar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079년에 측정된 1년은 365.2421일로 4년마다 윤년을 두어 일년이 365.25일로 계산되는 Julius calendar와 일년에 약 0.0079일이 늘어나다보니 128년이면 거의 하루차이가 납니다. ($0.0079 \times 128 = 1.0112 \approx 1$) 1600년후엔 약 12일정도 오차가 납니다. 이렇게 되면 날짜와 계절이 잘 맞지않게 됩니다. 매년 3월21일쯤에 일어나는 춘분(equinox)이 4월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좀더 정확도를 늘리기위해, 종전대로 4로 나누어지는 해에 윤년을 실시하되, 100으로 나누어지는 해는 평년(1800년이나 1900년등), 그러나 서기 2000년처럼 400

으로 나눌수있는 해는 윤년이 되도록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Gregorian calendar를 사용하면 3236년만에 실제 공전주기와 1일의 오차가 납니다. 지구의 자전속도도 기후변화와 지각변동으로 조금씩 늦어져 윤초(leap second)를 두어 표준시간인 UTC를 보정하고 있습니다. Julius calendar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Gregorian calendar가 제정되었을때 달력을 보면, 그동안 늘어났던 일수를 보완하기위해 10월4일 다음날이 10월15일로 되어 있음을 볼수있습니다. 미국은 영국, Canada와 함께 1752년 대다수의 국가 Gregorian calendar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종전에 사용하던 달력과 날짜조정을 한 결과, 9월2일 다음날이 9월14일로 되어있음을 볼수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Gregorian calendar를 표준달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Iran, Afghanistan, Ethiopia, Nepal등은 그들만의 달력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한 현대는 하루 자전시간도 정확히 재기 때문에, UTC(국제표준시간)는 원자 시계(Atomic clock)와 정확한 지구 자전 시간에 기초하여 시간을 정하는데, 원래 하루 24시간은 지구의 자전에 기반을

September 1752						
Su	M	Tu	W	Th	F	Sa
-	-	1	2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두고 정한것이라, 기후와 지각변동에 의하여 조금씩 늦어지는 관계로, 원자시계로 측정하는 시간과 오차가 생깁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UTC는 필요시 1초를 보태는 윤초(leap year)를 두고있는데, UTC와 지구자전이 0.9초이내에 있도록 조종하며, 윤초를 시행할 때에는 6월30일이나 12월31일에 합니다. 태양위치에 기준을 둔 solar

time(太陽時)은 Universal Time(UT1)으로 알려져 있는데, 하루 24시간은 우리 인간이 태양의 영향을 받기때문에 태양의 위치에 초점을 맞추었기에 실제 지구자전 시간인 23시간 56분 4.0905초보다 약 4분정도 깁니다.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24시간 하루를 태양일(solar day)이라고 부르는 반면, 지구가 360° 완전히 도는 하루는 sidereal day(항성일:恒星日)로 구별하는데, 위에 언급했듯이 대략 23시간 56분으로 태양일보다 4분정도 빠릅니다. sidereal은 Latin어의 sidus(sidereus)가 어원으로 star의 뜻입니다. 지구는 자전과 동시에 궤도를 따라 공전을 함으로, 지구가 완전히 한바퀴 돌았을때 지구의 같은 자오선에서의 태양위치는 어제와 다릅니다. 어제 낮12시에 태양이 머리 위에 있었다면 오늘 12시에도 같은 위치에 있게하기 위해서는 지구가 1° 정도 더 돌아야 하기때문에 우리가 일상사용하는 24시간 태양일이 실제 자전시간보다 4분정도 깁니다. 하루에 4분 차이는 6개월이면 12시간, 일년이면 24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태양일로는 1년 365일이지만, 항성일(恒星時: sidereal day)로 보면 1년은 366일이 됩니다. 실제 지구 자전수는 1년에 366번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시간은 태양의 위치에 맞추어 설정한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6개월후엔 해가 12시간 일찍뜨게 됩니다.

주요 영어단어를 간추리면, 춘(春)분은 "equinox", 춘분은 "spring equinox", 동지는 "winter solstice", 자전은 "rotation", 공전은 "revolution", 평년은 "normal year", 윤년은 "leap year", 달이 차는것은 "wax", 기우는것은 "wane", 초생달은 "waxing crescent", 그믐달은 "waning crescent", 반달은 흔히 "half moon"이라고 하지만, 정식명칭은 "quarter

<21페이지로 계속>

수필

혼란스런 두마음

레베카 김

남부뉴저지한국학교 교사
브레이버맨 센타 원장



음악가의 연주를 보고 듣고 따라 부르면서 우울한 마음 무거운 생각들 하늘로 날려보낸다. 그 노래의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는 법 배우며, 어지러운 혼 다 빼내고 가벼운 몸으로 돌아온다.

오페라가수가 유명배우 못지않은 연기와 노래로 무대를 꽉 채울 때, 알앤비(R&B) 음악의 영성이 감성을 더하여 딱딱한 내 가슴을 두드릴 때 막혔던 숨이 한 올씩 풀려나온다. 음악에서 묻어나는 투명한 소리가 길거리에 쓰러져있는 자를 일으켜 세우고, 온힘을 다하여 작곡가의 이야기를 끌어내는 열정이 사위일체의 풍성함과 웅장함을 만들어 희망을 갖게 한다. 그러나 이 음악이 명성과 욕심으로 둔갑하여 휘둘러질 때 그 소리는 악마의 소리 우상이 되어 맹종으로 따르는 자를 시궁창에 빠지게 한다. 어느 피아니스트가 이야기하길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면 연주를 할 수 없다고... 세계 삼대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호세 카레라스, 플라시도 도밍고의 음악, 내 손에 들려있는 쟁쟁한 음반의 하나다. 루치아노 파바로티는 할일 다 마치고 떠났고, 호세 카레라스, 개인적인 활동에 대해 별로 아는게 없다. 하지만 플라시도 도밍고는 많은 오페라 연주회에서 접할 기회가 있었다. 그의 막힘없는 노래를 듣노라면 나는 보이지 않고, 그의 노래와 이야기만이 들려져 새로운 세상에서 한참을 마실 갔다 돌아오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그에 대한 존경과 찬사, 그를 닮아 노래를 잘 부르고 싶었던 간절함,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일이 터졌다. 2019년 20여명의 여성들이 그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뉴욕메트로폴리탄 오페라를 떠났고, 캘리포니아 LA 오페라 음악감독 자리까지 내려놓게 된다. 최근 미국 라디오방송 NPR에 의하면 아르헨티나 성매매 조직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미국에서 이러한 곤란한 상황에도 그는 계속 유럽 중동지역 순회공연을 했고, 이번 해 말까지 일본 스페인 멕시코 터키 연주가 계획되어있다 한다. 지난 2022년 8월에는 부산 영화의 전당 야외무대에서 ‘플라시도 도밍고 라이브인 부산 2022’ 공연이 있었다. 우연한 기회에 실황을 보게 되었는데 81세의 그는 여전했고, 김호중은 얼마나 그를 존경하고, 그를 본받아 노래부르고 싶었는지, 그의 평생소원이었다고, 이러한 날이 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엄청 설레며 긴장된다고 그는 고백했다. 내 손에 들려있는 또 하나의 음반, ‘아이 빌리브 아이 켄 플라이(I believe I can Fly)’

알 켈리(R. Kelly). 1996년에 나온 노래로 알앤비 싱글차트에 1위, 미국차트에 1위로 등재되었으며, 빌보드 핫 100에 2위로 등재되었다. 이 노래가 처음 나왔을 때 ‘둥둥’ 내 마음에 떨림이 있었다. 운전하다 듣노라면 그날은 신나는 날이 되고 한손은 운전대에 한손은 하늘 향해 스스로 날개를 치켜들며 ‘아이 켄 플라이’를 소리높여 알 켈리보다 더 진지하게 부르곤 했다. ‘...그걸 볼 수 있다면 그러면 난 할 수 있어요, 만일 그걸 믿기만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난 믿어요 내가 날 수 있다는 걸...’ 호소력이 있었고 흑인의 락에 블루스에 경건성까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무너져가는 이에게 용기를 주며 날수 있다는...

그런데 일이 터졌다. 그는 2017에 소아성애 및 성범죄논란이 있었고 2019년에 증거 자료가 발굴되면서 구속되었고, 2022년 6월29일 법원으로부터 30년 형과 10만달러 선고를 받게된다.

플라시도 도밍고와 알 켈리, 내안에 혼적으로 남아 나의 지나온 날들을 기억하게 한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이 오버랩되면서 혼란스럽다. 계속 들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접어서 더 이상 듣지 않고 부르지 않고 잊어야 하는지... 유독 두마음이 혼란스럽다.

귀한 것을 잃어버린 공허한 마음에 르네 플레밍이 ‘디 토테 스타트(Die tote Stadt:Gluck, das mir verblieb)’를 절절히 부르며 무대를 장식한다. 칼럼 스캇(Calum Scott), ‘유아더 리즌(You are the reason)’하며 다가온다. ■

<달력이야기> 20페이지에서 계속

moon”입니다. 달의 모양(moon phases)을 초생달부터 그믐달을 거쳐 다시 초생달이 될때까지의 주기를 1로 보면, 초생달로부터 첫 반달이되는 기간은 전체의 4분의 1이기 때문에 이때의 반달은 “first quarter”, 보름달후의 반달은 전체주기의 4분의3이 되는 지점인데 이때의 반달은 “last quarter”로 부릅니다. 보름달은 “full moon”이며 Blue Moon, Harvest Moon등 여러이름으로 불립니다. 양력은 “solar calendar”, 음력은 “lunar calendar”, 그리고 공전 주기는 “Period of Revolution”입니다.
Thank you. ■

기행문

튀르키예 여행기

터키 나라의 공식 국호가 튀르키예로 바뀌었으나
기행문에서는 두 이름을 혼용했습니다. (편집부)

송은숙

대한관광여행사창
Dae Han Tour US
Dallas TX



10월은 천고마비의 계절... 그 어디를 가도
황금 단풍으로 물들어있을 어떤 곳도 아
름다울 것이다, 이번 가을은 색채가 뛰어난
단풍과 함께 색깔 여행을 떠나볼까 한다.
이번 여행은 동서를 머금고 유럽과 아이시
를 연결하는 나라, 튀르키예에 몸을 실어
날아가 보자.

타이트한 일정... 적지 않은 이동... 다른 일
행들과의 조인... 다소 염려스러운 부분과
터키라는 이름에서 주는
묘한 궁금증과 호기심을
안고 비행기에 올랐다

인류문화의 보물창고라는
터키... 동양과 서양을 연
결하는 통로...이슬람의 중
심이자 기독교의 성지가
공존하는 곳... 한때 유럽
을 떨게만들었던 오스만
튀르크의 나라...

카파도키아- 안탈리아- 파묵칼레- 에페
소- 이스탄불의 일정 속에 설렘을 안고 첫
코스인 카파도키아에 도착했다...신과 자
연의 합작품이라는 카피의 기묘한 모습은
인간이 흉내 낼 수 없는 수많은 각각의 형
상을 한 돌기둥과 시루떡을 쌓아놓은 듯한
언덕이 보여주는 모습은 마치 화성
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며
경외감을 안겨주었다

3,900미터의 에르지예스산의 폭발
과 휴지기를 수백 차례 반복하면
서 인고의 세월이 만들어낸 걸작
품이다... 응회암 사암 현무암이 반
복적으로 쌓이면서 보여주는 그 단
면은, 찰나의 시간을 사는 인간 시

간과는 다른 또 다른 차원의 세계를 보는
듯했다.

이곳은 역사적으로도 히타이트 제국부터
페르시아 비잔틴제국을 거쳐 오스만 투르
크에 이르기까지 역사 속의 거인들의 땅에
속했으며, 또한 사도바울의 흔적이 거쳐
간 이슬람 속의 기독교의 땅이기도 하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후 로마 황
제 콘스탄티누스대제에 의해 기독교가 공
인되던 313년의 밀라노 칙령까지 로마의



잔인한 박해를 피해 초기 기독교의 피난처
가 되기도 했으며 수많은 초기 기독교 성
인들의 성지이기도 하다

돌산에 바위를 파서... 때로는 동굴 속에 교
회를 만들고, 지하도시까지 만들어가면서
로마에 저항했던 그들의 신념을 이어 나간
곳이다. 이 모든 사연과 자연의 모습을 동



이 떠오르는 새벽에 열기구에서 바라본 그
순간의 벽차오름은 이미 영원한 추억으로
가슴 한쪽에 자리를 잡아버렸다...

이제 한 도시를 여행했을 뿐인데 너무나도
많은 감동을 안고 안탈리아로 향하는 긴 이
동시간...처음 일정을 보고 제일 우려했던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은 우리가 터키를...
좀 더 넓게는 오스만튀르크를... 그리고 막
연하게 바라보던 중동의 모습들을 알 수 있
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또한 서구의 렌즈를
끼고 바라보던 이슬람에 대한 편견들을 제
대로 알 수 있는 여행의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온 보석 같은 이야기를 가이드 선생님
께서 찬찬히 풀어주셨다... 머릿속의 실타
래가 풀리는 그 시간... 버스 차창 너머로
시시각각 바뀌는 여러 풍경을 보며 인류문
명의 발상지를 지나... 수많은 사연이 숨어
있을 실크로드 길을 지나면서,
때로는 13세기 상인이 되기도 하고 안토니
우스와 지나갔던 길에서는 내가 클레오파
트라가 되기도 했다... 이쁜 수채화 같은도
가 안탈리아에 도착하면서 우리는 탄성이
나왔다... 말로만 듣던 아름다운 지중해의
휴양도시... 긴 해변 중간에 융기된 4킬로
미터의 절벽

그 위로 형성된 고대 페르가몬 왕국과 로마
의 문화 오스만의 문화가 스타벅스와 함께
뒤섞여있는 모습... 그리고 이 도시를 감싸
고 있는 그리스신화의 배경이 되는 올림퍼
스산과 산봉우리들... 달력 속에 들어온 느
낌이랄까... 밤의 거리 모습은 이슬람국가의
거리라고 생각하지 못할 활기참과 젊음이
넘쳐나는 곳이었다



올림퍼스산 정상(2,365m)을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을 때 내 발밑에는 남쪽에 지중해가... 동쪽에는 에게해가 펼쳐져 있고 겹겹이 뻗은 산봉우리들과 구름이 펼쳐져 있었다. 신들이 인간을 바라볼 때의 풍경이 이 느낌일 것이다

파묵칼레는 히에라폴리스라는 고대 이름이 있는데, 귀족의 도시라는 뜻이다. 안토니우스와 오파트라가 머물면서 했던 온천이 그대로 보존된 곳인데 로마 귀족들이 드나들면서 유명해진 곳이다. 세계적으로 두 곳만 있는 우리가 사진에서 보던 산의 단면이 하얀 석회로 덮여있는 바로 그 온천이 있는 곳인데 굳이 온천욕을 하지 않아도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기 바쁠 만큼 아름다운 곳이었다. 석회 성분이 있는 온



천수인 탓에 온천수에서 오랜 세월이 누적되면서 눈이 쌓인 마냥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온천이 된 곳인데, 로마인들도 신기했는지... 온천 뒤로는 신전의 흔적들이 있었다. 특히하게도 전국각지에서 몰려든 탓에 그 지역에서는 신전뿐 아니라 여러 신전이 있었던 모습이 인상 깊었다. 라오디게아를 근처에 두고 필립보의 무덤이 근처

에 있는 기독교에 서도 의미 있는 곳이기도 했다...소아시아 7대 교회가 있던 곳... 사도 요한과 성모마리아의 집이 근처에 있는 곳... 사도바울이 감옥에 갇혀 신약성서의 모태가 되었던 편지를 썼던 곳... 그러나 예

페소의 전성기는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의 시절이다.

기원전 5세기부터 기원후 3세기까지 이오니아라고 불리던 지금의 서부 터키지역의 올리브 모피 등을 그리스 본토로 수출하던 최대 로마 도시답게 유적지가 화려하다.

파묵칼레와는 달리 유적이 밀집해 있어서 세세하게 보기 좋았는데 너무나도 완벽하게 보존 복원되어 있어서 그곳을 걸으면서 2500년 전의 사람들이 짝 채운 모습이 저절로 상상하게 된다. 귀족들의 사교모임 장소 오데온... 고대 로마의 목욕탕과 화장실, 로마 복원 건축의 최고봉이라는 그 유명한 셀수스도서관... 이만 오천명이 들어가는 원형경기장, 하나같이 그 시절에 지은 건축물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에 왜 에페소가

유명한지를 실감하고... 가이드 선생님의 세세한 설명을 들으면서 거니니 내가 마치 로마인이 된 듯한 착각을 하게 되었다...

우리 여정의 마지막 도시인 이스탄불은, 그 유명한 동로마의 천년 수도로 콘스탄티노플로 불렸다... 1453년 오스만 튀르크의

이슬람 세력에게 천년 제국은 불꽃은 꺼졌지만, 도시 전체에 그들이 남긴 위대한 유산들은 아직도 활활 타오르고 있다... 일주일... 아니 한 달을 다녀도 다 볼 수 없는 곳이지만, 이틀이나마 최대한 많은 곳을 답아가기 위해 바빠 움직였다...

537년에 완공된 기독교의 위대한 유산인 소피아성당(현재는 이슬람 사원), 1609년에 완공된 아름다운 블루모스크, 오스만의 궁전인 톱카프와 돌마바흐체 궁전 등, 세세하게 알려주고 싶은 당대의 걸작들이 있으며, 아시아와 유럽의 중간지대인 한강만 한 보스포루스 해협을 유람선을 타고 두 대륙



을 왕복하는 신기한 경험도 하고... 활기찬 시내의 시티투어를 하면서 우리의 일정은 서서히 마무리되어가고 있었다

여행하면서 자연의 위대함과 역사의 위대함 종교의 위대함과 문화의 위대함을 골고루 느끼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오랫동안 가슴속에 남아있는 탐방을 한 뿌듯함과 기분 좋은 피로감이 몰려왔다... 이런 느낌을 주는 또 다른 나라가 있을까...?? 터키를 다시 올 때 어떤 느낌이 들까? 처음 올 때의 설렘이 갈 때도 똑같이 남아있는 색다른 기분이 드는 그런 곳이었다...

가이드 선생님과도 다음 만남을 기약하면서 헤어졌지만, 곧 다시 만날 거라는 생각이 든다. 아니... 카파도키아도 소피아 성당도 반갑게 만나게 될 거라는 확신이 드는 8박 9일간의 황홀한 경험이었다...

2022.10월 14일 이스탄불 방구석에서.. ■

뉴멕시코 가을 여행과 만남

윤봉수

Elmhurst Memorial Hospital 은퇴간호사
Allience Fellowship Korean Church 권사

수십 년은 됐으리라. Albuquerque(알버커키), NM 주소의 발신지에서 온 편지를 받은 일이 있음을 내가 기억하는 것은 발음 하기도 힘든 그 이상한 지명 때문이다. 올 가을에 드디어,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다. 시카고 골든 클럽(65세 이상의 동창으로 구성)은 회원들이 함께 장기 여행을 다녀 오는 것이 연중행사 중에 Highlight인데, 그동안 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셨다. 지난 2년은 COVID Pandemic으로 단헐던 여행을 올해는 국내 여행에 국한하고 여행지를 물색하던 중, 회원들께서 비교적 찾지 않으셨던 미 남서부의 뉴멕시코주가 한 여행사에서 새로운 여행지로 선보였는데, 고객들의 대만족, 좋은 반응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골든 클럽 회원들의 다수 결정으로 올 가을 여행지로 선정되었다.

이번 가을 여행이 가져온 특별한 두 분과의 만남이 있었다. 미주 동창회보의 한 작은 지면에 실린 시카고 골든 클럽의 뉴멕시코 가을 여행 소식을 보시고, 1969년도에 Albuquerque로 유학하러 오셔서 지금까지 이곳에 살고 계신 이경화(공대 전자공학과 56 입학) 선배님께서 연락해 오셨다. 이경화 선배님을 이번 여행 중 한 코스인 Albuquerque를 방문했을 때 일행과 반가운 만남이 있었다. 선배님은 지역 한인 사회에도 큰 공헌을 하신 분으로, 한인회장을 두 번 역임하셨고,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이곳 한인교회의 장로님이시며, 뉴멕시코 교민의 소식과 뉴멕시코를 미주 한인들에게 알리기 위한 격 월간지 '광야의 소리'의 편집을 또한 맡고 계신다. 이번 만남

에서 새로이 알게 된 사실은 선배님이 우리 한국 국민애창곡인 '오빠 생각'의 작사가인 최순애님과 '고향의 봄'을 작사하신 아동문학가 이원수님의 아드님이시란 것이다. 선배님은 우리의 일정을 미리 보시고는 꼭 봐야 할 곳 두 곳을 더 추천해 주셔서 여행사에서 일정에 추가시켜 더욱 memorable 한가을 여행이 되도록 도움을 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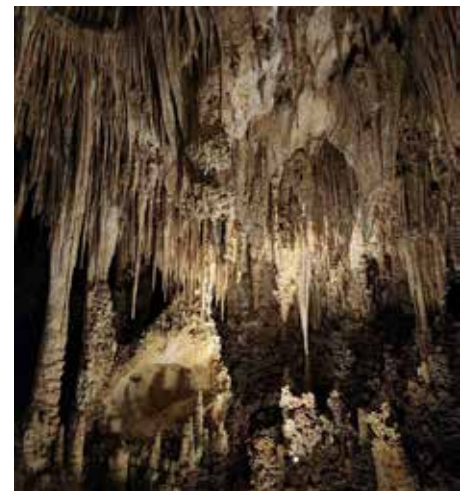
또 하나의 특별한 만남이 있었는데, 이번 여행의 가이드님이다. Peter Kim(김민준)께서는 이곳 갈릴리 장로교회의 담임목사이시고 서울대 후배시다. 미시간주에서 3년 전 이곳으로 소명을 받고 오셔서 열심히 목회하고 계신분이다. 작년에 처음으로 뉴멕시코를 안내해 줄 가이드를 찾던 뉴욕의 아리랑 여행사가 수소문 끝에 발굴해 낸 분이다. 첫날 버스 안에서 일정표 중이를 나누어 주셨는데 앞면은 5박 6일의 일정이고, 뒷면은 천연색 뉴멕시코 지도였다. 이로써 우리 일행은, 가이드님의 지시에 따라 버스에서 매일 지도를 보면서 A부터 Z까지 방문할 곳과 거쳐 갈 곳의 지명과 함께 그곳과 연관된 사진, 기업체, 이벤트, 음식점, 음식물, 특산물 등을 소개 받고 지리, 역사, 문화, 예술 등을 배우는 복습과 연습의 학습이 시작된 거다!

학습이 반복되면서 마치 옛 학창 시절로 돌아간 듯한 착각에 빠진다. 때로는 자신에 관한 이야기와 간증으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종교와 역사, 철학도 두루 섭렵하시는 지적 가이드님이시다.



윤봉수씨와 남편 이경섭씨. White Rock Overlook

뉴멕시코 하면, 메마른 사막만 떠올랐는데(물론 남부는 광활하고 건조한 관목만 끝없이 펼쳐져 있다) 뉴멕시코 남단의 Carlsbad Caverns National Park는 110여 개의 동굴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는 가장 큰 The Big Room을 찾아갔다. 지하



칼스베드 캐번 속에서 보는 화려한 종유석

755 feet를 순식간에 내려가 귀가 멍멍한 가운데 elevator를 나와서 조금 걸어 들어가자, 그 웅장한 위용이 어둠 속에서 서서히 드러났다. 6개의 Football 경기장이 들어간다는 공간, 이곳은 위를 쳐다보니, 마치 하늘을 보는 것 같이 천정이 안 보인다. 엄청난 크기의 Giant Dome과 Twin Dome의 석순 기둥과 섬세한 고드름 모양의 다채로운 종유석이 헤아릴 수 없이 달려 있어 장관을 이루었다. 단단한 쇠의 rail 손잡이가 코스 처음부터 끝까지 어둠 속에서 가는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였다.

White Sands National Park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규모(서울시보다 더 크다.)는 바



White Sands National Park

다도 없는 이곳에 웬일로 사방을 둘러봐도 끝없는 흰 모래, 모래 둔덕이 파란 하늘과 춤추는 흰 구름에 잊닿은 풍경은 이미 나의 뉴멕시코에 대한 무지함을 놀라운 자연 경관 앞에서 무릎 꿇게 하였다.

더 있고 싶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음 목적지로 향해야 했다.

Green and Red Chilli Peppers의 고장 Hatch의 한 선물 가게에서 본 Wreath처럼 둥글게 만든 빨강고 파란 고추들의 화려한 색상과 조화, 주렁주렁 처마를 따라서 일정하게 묶어 늘어뜨린 고추 다발들은 예쁜 크리스마스 장식물을 연상시키고, 편편한 지붕에 널어서 고추를 말리는 풍경은 한국의 가을 정취를 불러일으켰다.

알버커키(Albuquerque)에서는 10,378



환영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ristras 고추다발 feet 높이의 Sandia peak 정상을 북미에서 가장 길다는 15분간의 Tramway를 타고 올라갔다. 앞에서 보이는 산은 돌산으로 자칫 돌들이 굴러 떨어질 것만 같은데 tram을 타고 가파르게 올라가 보니 밑은 까마득한 절벽, 협곡이요, '금강산 일만 이천 봉'을 상상케 하는 봉우리들이 수없이 아래로 보인다. 산 정상 가까이 는 눈이 쌓여있다. 생각해보라, 이산은 백두산보다 300미터쯤 더 높지 않은가! 동시에, 녹색의 침엽수와 흰 눈 사이로 노란 가을 단풍이 산의 곳곳에서 반짝이며 빛나고



흰 모래는 Gypsum Crystal의 모래이다 있었다. Tram을 타고 올라갈 때는 일행 중 여성 몇 분이 부르신 창조의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가 선율이 우리 모두를 겸허하게 하였다.

Bandelier National Monument는 푸에블로 인디언들의 수천 년 넘은 residence이다. 화산 작용으로 형성된 거대한 암산 그 자체다. 암산에 생긴 크고 작은 수없는 구멍들은 마치 스위스 치즈를 연상케도 한다. 생긴 큰 구멍들은 그들의 거처요, 은신처였으리라. 몇몇 용감한 회원님들은 걸쳐진 높은 사다리를 타고 그 안에 들어갔다



밴델리어 모뉴먼트의 응화암 암산절벽

나오신다. 암산에서 내려다보니 밑이 아찔하다. 마주 보는 숲에는 노란 가을 단풍이 한창이다. 가을 숲속으로 걸어 들어가 보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Bandelier에서 멀지 않은 White Rock Overlook에서는 눈높이 저 멀리로는 눈이 인 흰 산머리가 둘러있고 까마득하게 아래로는 뉴멕시코의 젖줄인 Rio Grande 강이 길게 굽어 흐르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온다.

Santa Fe는 미국 최초의 수도가 된 도시고 뉴멕시코의 주도이다. 이곳에 있는 미국 최초의 가톨릭 성당인 San Miguel Chapel 과1610년에 지음)과 길 건너 있는 미국 최초의 집을 방문하였다. 유명한 여류화가



San Miguel Chapel, The oldest Church in USA

Georgia O'Keeffe Museum을 둘러보고 뉴멕시코를 사랑해서 40여 년을 이곳에서 산 그의 생애의 흔적과 미술품들을 접하는 기회를 가졌다.

<26페이지로 계속>



New Mexico State Capitol 주정부 청사앞에서 시카고 골든 클럽의 기념사진

뉴멕시코 가을 여행과 만남

<25페이지에서 계속>

또한, Santa Fe의 북동쪽에 위치한 Chichayo의 Chimayo 성당은 아름다운 자연에 둘러있는 넓은 campus를 가지고 있는데, 오랜만에 물소리를 내며 흘러내리는 맑은 개천을 끼고 있어 일행에게 기쁨과 청량감을 선사해 주었다. 이곳은 치유의 역사가 있어 현대의 순례지로 많은 사람이 찾고 있는 곳이다.



30만명의 순례자가 매년 찾아오는 Chimayo Chapel,

무엇보다 이번 여행에서는 푸짐하고 맛있는 멕시코 음식을 자주 먹었는데 그중에도 처음 먹어보는 갓구워 따끈한 속이 빈 소파피아 빵을 (우리는 이를 공갈빵이라 이름함) 꿀에 찍어 먹는 맛이 일품이었다. 당신은 여행하면서 제발 좀 덜 먹게 해달라고 요청한 일이 있었는가? 우리는 정말 그렇게 요청했다. Sunrise Restaurant에서 첫날 아침 식사량이 너무 많아서 다음날은 반으로 줄여 달라하고 모두 속이 편했다고 말했다.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는 이경화 선배님이 추천하신 National Museum of Nuclear science and history였는데 이곳에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각각 떨어뜨린 원자 폭탄과 똑같은 모형물 둘과 이들 원자탄을 실었던 B29 bomber 비행기가 전시되어 있어, 이에 따라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고 결국은 조국의 해방을 가져온 역사적 사실

예배

대표기도문

구경범 권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주간 저희들 세상속에 나가 살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혼란한 세상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세상이 주는 걱정, 근심을 모두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께만 집중하여 저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귀한 예배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죽을 수 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땅에 오신 예수님. 그것이 얼마나 큰 희생이였는지 얼마나 깊고 넓은 사랑이였는지 저희의 지식으로는 온전히 이해 할 수는 없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 말씀처럼 저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이 부족한 이 세상에서 저희들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세상속에 살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빛과 소금의역할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였는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저희는 연약하여 할수없으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일이 없음을 압니다. 예수

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하여 예수님을 정말 깊게 만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길원합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지는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 그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의 다시 오실날이 얼마남지 않음을 느낍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갈때 등잔만 갖고 나간 어리석은 처녀가 아니라 등잔을 환히 밝힐 기름을 함께 갖고나간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늘 말씀과 성령충만으로 주님 오실날을 고대하며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렵고 힘든 삶속에 환난과 시련이 닥쳐올지라도 옴과 같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 내어 정금 같은 신앙을 소유한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다시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

을 상기하면서 우리 일행은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드디어, 모든 여행 일정을 마치고 내일 아침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니 이번 여행지들이 머릿속에서 파노라마처럼 펼쳐 지나간다. 무엇보다도 엄청난 대자연의 경이로움에 빠진 여행이었다! 너무 몰랐던 뉴멕시코주를 자연과 함께 알아가게 한 이번 여행은 매우 유익하고 뜻깊었으며, 즐거운 여행 동반자 골든 클럽 회원님들이 계셔서

행복했다!

마지막 날에는 가이드님과 공부한 지도가 제법 너털너털해졌다!

‘A’ – Albuquerque!

‘B’ – Bandelier Ntl Monument!

‘C’ – Carlsbad Ntl Caverns!

‘D’ – Deming! Dog race!

~~~

‘W’ – White Sands Ntl Park!

...ZZ..zzz.... good night!..... ■





교회에서 원하시는  
Icon용 사진을 보내주  
시면 광고에 추가해 드  
립니다. 보내실 곳:  
voiceofnm@gmail.com

### 갈릴리 장로교회 (Albuquerque)

김민순 목사 (505)975-0322  
주일예배 시간: 오후 1:00 pm  
(예배 후 점심식사 교제)  
어린이주일학교 시간: 오후  
1:00 pm  
토요새벽예배 시간: 7:00 am  
주소: 2200 Chelwood Park Blvd  
NE, Albuquerque, NM87112  
교회 웹사이트: www.galileeabq.  
com



###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Albuquerque)

김기천 목사 (505)-803-7716  
주일예배 (Korean Worship)  
11:00 am (Sunday)  
영어예배 (English Worship)  
9:45 am (Sunday)  
어린이 영어예배  
(PreK/K-3/4-7) 10:00 am  
(Sunday)



중/고등부 / 주일학교 예배 11:00 (Sunday)  
새벽기도회 6:00 am (Tue-Sat.)  
주소: 601 Tyler Rd., NE, Albuquerque, NM 87113  
웹사이트: www.kumcabq.com

온라인예배방영: www.youtube.com/KUMC\_Online  
페이스북: www.facebook.com/kumcabq

### 라스 크루세스 침례교회 (Las Cruces)

주일예배 시간: 10:30 am  
새벽예배및 기도회: 5:30am(mon-sat)  
금요일예배및 기도회: 7:30pm-10pm  
주소: 2395 N Solano Dr., Las Cruces, NM 88001

### 라스 쿠르세스 장로교회 (Las Cruces)

유평산 목사 (915)329-3451

주일예배 시간: 10:30am  
주소: 200 E. Boutz rd, Las Cruces, NM88005

###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Albuquerque)

윤성열 목사 (505) 331-9584  
주일예배 시간: 오전 9:00 am /  
오전 11:00 am  
새벽기도회 5:45 am (Tue-  
Fri)  
수요 예배 매주 수요일 7:00 pm  
주소: 3315 Tower Rd, SW,  
Albuquerque, NM



### 로스 알라모스/산타페 한인 교회 (Los Alamos, Santa Fe)



김석훈 목사(505)699-4775  
주일예배 1부 시간: 11:30 am  
주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주일예배 2부 시간: 2:00 pm  
주소: Westminster 장로교회 (Santa Fe)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웹사이트: www.santafekorchurch.net

### 알버커키 한인 천주교 공동체 (Albuquerque)

사목회장:김지수 전례부장:장경림  
주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532 Vermont St NE, Albuquerque, NM87110  
소공동체 (화,오전), 성령기도회(수,저녁)  
기도회: (코로나로 인해 재 구성 중)  
장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St. Frances Hall  
Contact : (505)-503-9846  
웹사이트: cafe.daum.net/abq-catholic

### 클로비스 한인 교회 (Clovis)

이성희 목사 (575-791-1453)  
Korean Full Gospel Church of Clovis  
405 Connelly St. Clovis, NM 88101  
주일예배: 11:45pm  
수요모임 11:30am  
아침기도회: 7:00am(월, 화, 목, 금)





#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이 난은 거무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voiceofnm@gmail.com으로 연락주세요.

|                                                                                                                                                                                                                                                                                                                                                                                                                                                                                                                                                                                                                                                                                                                                                                                                                                                                                                                                                            |                                                                                                                                                                                                                                                                                                                                                                                                                                                                                                                                                                                                                                                                                                                                                                                                                                                                                                     |                                                                                                                                                                                                                                                                                                                                                                                                                                                                                                                                                                                                                                                                                                                                                                                                                                                                                                                          |                                                                                                                                                                                                                                                                                                                                                                                                                                                                                                                                                                                                                                                                                                                                    |                                                                                                                                                                                                                                                                                                                                                                                                                                                                                                                                                                                                                                                                                                                                                                                                                                                                                                                                          |
|------------------------------------------------------------------------------------------------------------------------------------------------------------------------------------------------------------------------------------------------------------------------------------------------------------------------------------------------------------------------------------------------------------------------------------------------------------------------------------------------------------------------------------------------------------------------------------------------------------------------------------------------------------------------------------------------------------------------------------------------------------------------------------------------------------------------------------------------------------------------------------------------------------------------------------------------------------|-----------------------------------------------------------------------------------------------------------------------------------------------------------------------------------------------------------------------------------------------------------------------------------------------------------------------------------------------------------------------------------------------------------------------------------------------------------------------------------------------------------------------------------------------------------------------------------------------------------------------------------------------------------------------------------------------------------------------------------------------------------------------------------------------------------------------------------------------------------------------------------------------------|--------------------------------------------------------------------------------------------------------------------------------------------------------------------------------------------------------------------------------------------------------------------------------------------------------------------------------------------------------------------------------------------------------------------------------------------------------------------------------------------------------------------------------------------------------------------------------------------------------------------------------------------------------------------------------------------------------------------------------------------------------------------------------------------------------------------------------------------------------------------------------------------------------------------------|------------------------------------------------------------------------------------------------------------------------------------------------------------------------------------------------------------------------------------------------------------------------------------------------------------------------------------------------------------------------------------------------------------------------------------------------------------------------------------------------------------------------------------------------------------------------------------------------------------------------------------------------------------------------------------------------------------------------------------|------------------------------------------------------------------------------------------------------------------------------------------------------------------------------------------------------------------------------------------------------------------------------------------------------------------------------------------------------------------------------------------------------------------------------------------------------------------------------------------------------------------------------------------------------------------------------------------------------------------------------------------------------------------------------------------------------------------------------------------------------------------------------------------------------------------------------------------------------------------------------------------------------------------------------------------|
| <p><b>알버커키 Albuquerque</b></p> <p>건축/페인트 Painting</p> <p>1st Choice Painting<br/>Mr. Han Cho /조한욱<br/>1113 Lawrence Dr., NE<br/>ABQ, NM 87109<br/>(505-228-0393)</p> <p>단요가 Dahn Yoga</p> <p>알버커키505-797-2211<br/>커튼우드505-792-5111<br/>산타페505-820-2211<br/>다운타운 505-262-2211<br/>이스트마운튼505-286-3535<br/>www.dahnyoga.com</p> <p>리커스토어 Liquors</p> <p>Casa Liquor<br/>1649 Bridge Blvd. SW<br/>(505)247-2525</p> <p>Kelly Liquors #2<br/>5850 Eubank NE<br/>(505)291-9914</p> <p>Kelly Liquors #5<br/>6124 4th St NW<br/>(505) 828-1133</p> <p>Kelly Liquors #7<br/>1418 Juan Tabo NE<br/>(505)292-4520</p> <p>Kelly Liquors #8<br/>11816 Central SE<br/>(505) 299-3366</p> <p>Kelly Liquors #9<br/>1903 Coors SW<br/>(505) 873-4477</p> <p>Kelly Liquors #10<br/>4312 Coors SW<br/>(505) 877-2777</p> <p>Kelly Liquors #14<br/>6300 San Mateo Blvd NE<br/>Suite R (505) 797-9966</p> <p>Stadium Liquor<br/>1306 Broadway SE ABQ,<br/>NM (505-242-8542)</p> | <p><b>변호사 Law Firm</b></p> <p>노영준 변호사<br/>Cuddy &amp; McCarthy LLP<br/>201 Third St. NW<br/>Suit 1300<br/>Albuquerque NM 87102<br/>(505)888-1335<br/>jroh@cuddymccarthy.com</p> <p>부동산 Realtors</p> <p>김영신 Yong Shin Kim:<br/>Prudential Realtors<br/>(505-321-7695)</p> <p>이준 June Lee<br/>Ready Real Estate<br/>(505-730-6178)</p> <p>세탁소 Dry Cleaners</p> <p>Kitch Cleaners<br/>4606 Lomas Blvd. NE<br/>(505-255-0642)<br/>Laundromate</p> <p>Wash Brite Laundry<br/>901-A San Pedro SE ABQ<br/>(505-266-3231)</p> <p>식당 Restarant</p> <p>A-1 한식 Cafe<br/>6207 Montgomery Blvd. NE<br/>(505)275-9021</p> <p>Arirang Restaurant<br/>1826 Eubank NE, ABQ<br/>(505-255-9634)</p> <p>스시벅스(SUSHIBUCKS)<br/>2106 Central Ave. SE<br/>Ste.A<br/>ABQ (505)243-8089</p> <p>Asian Pear<br/>8101 San Pedro Dr.NE, D<br/>ABQ (505)766-9405</p> <p>Fu-young<br/>3107 Eubank #16 NE<br/>ABQ (505-298-8989)</p> | <p>Ichiban Japanese:<br/>10701 Coors Rd NW<br/>ABQ (505-899-0095)</p> <p>Kim's Oriental<br/>2306 Morris NE<br/>ABQ (505-296-8568)</p> <p>Korean BBQ &amp; Sushi<br/>4214 Central SE<br/>ABQ (505-797-8000)</p> <p>K Style Kitchen<br/>6001 Winter Haven rd.G<br/>NW, ABQ NM<br/>(505-503-8699)</p> <p>Sakura Sushi Grill<br/>6241 Riverside Plaza NW<br/>ABQ (505-890-2838)</p> <p>Samurai<br/>9500 Montgomery NE,<br/>ABQ (505-275- 6601)</p> <p>Shogun<br/>3310 Central Ave SE,<br/>ABQ (505-265-9166)</p> <p>Tamashi Japanese<br/>6400 Holly Ave. NE<br/>ABQ NM87113<br/>(505-717-2457)</p> <p>식품점 Korean Grocery</p> <p>A-1 Oriental Market<br/>6207 Montgomery NE<br/>ABQ (505-275- 9021)</p> <p>Arirang Oriental Market<br/>1826 Eubank NE ABQ<br/>(505-255-9634)</p> <p>Kim's Oriental:<br/>2306 Morris NE<br/>ABQ (505-296-8568)</p> <p>AmericaSouthwest.com<br/>미국 남서부 지역<br/>여행안내 사이트입니다.<br/>(운영/제작: 이경화)</p> | <p>이발소 미장원<br/>Hair Cut</p> <p>Matthew Lee's Hair Style<br/>(홍정희)11901 Menaul NE<br/>(505-271-1056)</p> <p>Salon 123<br/>7114 Menaul NE<br/>(505-872-0301)</p> <p>자동차정비<br/>Auto Repair</p> <p>The Garage 자동차 정비<br/>6441 western Trail NW<br/>(505-352-5152)<br/>마이크 조<br/>웹사이트:thegaragenm.com</p> <p>주택용자<br/>Loan Officer</p> <p>고산식 Lonnie Ko<br/>7802 Menaul blvd. NE<br/>ABQ,<br/>NM 87110 (505-332-6663)<br/>(cell 505-379-0433)</p> <p>중재서비스</p> <p>ADR-Mediation Service<br/>Sue 1614 Betts Court NE,<br/>ABQ, NM 87112<br/>(505-332-9249)</p> <p>치과 Dental Clinic</p> <p>Rainbow Dental<br/>8611 Golf Course Rd. NW<br/>ABQ, NM 87120<br/>(505-890-6101)</p> <p>kumcABQ.com<br/>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br/>홈페이지 QR Code<br/>입니다</p> | <p>NAPA Family Dental<br/>Dr. 윤자정<br/>10820 Comanche Rd, NE<br/>Albuquerque, NM 87111<br/>ph)505-323-7700</p> <p>태권도 TaeKwonDo</p> <p>Dynamic taekwondo<br/>5850 Eubank blvd<br/>NE B-35 ABQ, NM 87111<br/>Master Jaeshin Cho<br/>(505) 271-2000</p> <p>한의사 Acupuncture</p> <p>Dr. Chang: (장상순)<br/>2917 Juan Tabo Blvd. NE<br/>#B, ABQ NM87112<br/>(505-255-0878)<br/>sangsoonc@gmail.com</p> <p>Dr. James D Park: (박달규)<br/>6501 Eagle Rock Ave, NE<br/>(505- 797-5400)<br/>East West Integrated Pain<br/>&amp; Rehab Center</p> <p>화원/원예 Nursery</p> <p>Osuna Nursery<br/>501 Osuna Rd NE, ABQ<br/>(505-345-6644)</p> <p>호텔 Hotel</p> <p>The Ambassador Inn<br/>(조영자)<br/>1520 Candelaria NE<br/>ABQ NM 87107<br/>505-345-2547</p> <p>회계사 CPA</p> <p>MTM Accounting Service<br/>문만길 회계사<br/>9428 freedom Way NE<br/>ABQ, NM 87109<br/>(505-823-2725)</p> <p>Voice.kumcabq.com<br/>스마트폰에서 QR code<br/>Scan 하셔서 광야의<br/>소리를 만나 보세요.</p> |
|------------------------------------------------------------------------------------------------------------------------------------------------------------------------------------------------------------------------------------------------------------------------------------------------------------------------------------------------------------------------------------------------------------------------------------------------------------------------------------------------------------------------------------------------------------------------------------------------------------------------------------------------------------------------------------------------------------------------------------------------------------------------------------------------------------------------------------------------------------------------------------------------------------------------------------------------------------|-----------------------------------------------------------------------------------------------------------------------------------------------------------------------------------------------------------------------------------------------------------------------------------------------------------------------------------------------------------------------------------------------------------------------------------------------------------------------------------------------------------------------------------------------------------------------------------------------------------------------------------------------------------------------------------------------------------------------------------------------------------------------------------------------------------------------------------------------------------------------------------------------------|--------------------------------------------------------------------------------------------------------------------------------------------------------------------------------------------------------------------------------------------------------------------------------------------------------------------------------------------------------------------------------------------------------------------------------------------------------------------------------------------------------------------------------------------------------------------------------------------------------------------------------------------------------------------------------------------------------------------------------------------------------------------------------------------------------------------------------------------------------------------------------------------------------------------------|------------------------------------------------------------------------------------------------------------------------------------------------------------------------------------------------------------------------------------------------------------------------------------------------------------------------------------------------------------------------------------------------------------------------------------------------------------------------------------------------------------------------------------------------------------------------------------------------------------------------------------------------------------------------------------------------------------------------------------|------------------------------------------------------------------------------------------------------------------------------------------------------------------------------------------------------------------------------------------------------------------------------------------------------------------------------------------------------------------------------------------------------------------------------------------------------------------------------------------------------------------------------------------------------------------------------------------------------------------------------------------------------------------------------------------------------------------------------------------------------------------------------------------------------------------------------------------------------------------------------------------------------------------------------------------|



#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voiceofnm@gmail.com으로 연락주세요.

|                                                                                                                                                                                        |                                                                                                                                                                                              |                                                                                                                                                                   |                                                                                                                                                |                                                                                                                                             |
|----------------------------------------------------------------------------------------------------------------------------------------------------------------------------------------|----------------------------------------------------------------------------------------------------------------------------------------------------------------------------------------------|-------------------------------------------------------------------------------------------------------------------------------------------------------------------|------------------------------------------------------------------------------------------------------------------------------------------------|---------------------------------------------------------------------------------------------------------------------------------------------|
| <p><b>라스베가스</b><br/>Las Vegas</p> <p>치과 Dentist</p> <p>Sanchez Dental, LLC<br/>Christopher J. Yoon, DDS<br/>(윤종석)<br/>711 6th Street, Las Vegas, NM<br/>87701<br/>(505-425-3435)</p>   | <p><b>로스 알라모스</b><br/>Los Alamos</p> <p>미장원 Hair Salon</p> <p>차진주 헤어(Peal's Place)<br/>800 Trinity #E<br/>Los Alamos<br/>(505)412-5294</p>                                                   | <p><b>산타페</b><br/>Santa Fe</p> <p>손톱미용 Nails</p> <p>Tiffany Nails(윤성희)<br/>410 Old Santa Fe Trl. #E<br/>(505)982-6214</p>                                         | <p>Kohnami Japanese Cuisine<br/>313 S. Guadalupe St.<br/>Santa Fe<br/>(505-470-1561)Hee Joo</p>                                                | <p>Shogun Japanese Steak House<br/>600 Pile St.<br/>Clovis, NM 88101<br/>(575)762-8577</p>                                                  |
| <p><b>라스크루세스</b><br/>Las Cruces</p> <p>공인회계사 ACC</p> <p>Kelly Tax and Accounting<br/>Services: 2131 N main st, Las<br/>Cruces, NM 88001 (575-523-<br/>5800)<br/>(Fax 575-523-7700)</p> | <p><b>리오란초</b><br/>Rio Rancho</p> <p>리커스토어 Liquors</p> <p>Kelly: 111 Rio Rancho NE, Reo<br/>Rancho (505-994-8855)</p>                                                                        | <p><b>변호사 Law Firm</b></p> <p>노영준 변호사<br/>Cuddy &amp; McCarthy LLP<br/>1701 Old Pecos Trail<br/>Santa Fe NM87502<br/>(505)988-4476<br/>jroh@cuddymccarthy.com</p> | <p><b>리커스토어 Liquors</b></p> <p>Kelly/ De Arco Liquor<br/>(@Solana Center)<br/>915 W. Alameda St.<br/>Santa Fe, NM 87501<br/>(505) 954-1399</p> | <p><b>식품 Korean Grocery</b></p> <p>K's Oriental Food Store<br/>921 Main St.<br/>Clovis, NM88101<br/>(575)762-8660</p>                       |
| <p><b>카페/ 선물 Cafe/Gift</b></p> <p>Big Chair Cafe &amp; gift shop:<br/>2701 W Picacho Ave, Las<br/>Cruces, NM 88007 (575-527-<br/>0098)</p>                                             | <p><b>로스루나스/벨렌/<br/>버나리요/보스키팜</b><br/>Bernalillo/Belen/Bosque<br/>Farms'Los Lunas</p> <p>리커스토어 Liquors</p> <p>Kelly Liquors<br/>408 Hwy 550W, Bernalillo,<br/>NM87004<br/>(505) 867-5838</p> | <p><b>식당 Restaurant</b></p> <p>박성희/신숙희<br/>Chopstix Oriental Food: 238 N.<br/>Guadalupe St., Santa Fe<br/>(505-820-2126)</p>                                      | <p><b>클로비스</b><br/>Clovis</p> <p>Kelly Liquor<br/>4300 Cerrillos Rd.<br/>Santa Fe, NM 87507<br/>(505) 471-3206</p>                             | <p><b>치과 Dentist</b></p> <p>KidsKare PC Family Dentists<br/>600 Texas St.C<br/>Clovis NM88101<br/>치과의사:박요셉-Sherry 부부<br/>(575)-762-1900</p> |
| <p><b>병원 Clinic</b></p> <p>Esther Patterson: URGENT<br/>CARE, Covenant Clinics, 3961<br/>E. Lohman Ave, Las Cruces<br/>NM88011 (575-556-0200)</p>                                      | <p><b>리커스토어 Liquors</b></p> <p>Kelly Liquors<br/>395 Bosque Farms Blvd.<br/>Bosque Farms, NM87002<br/>(505) 916-5656</p>                                                                     | <p><b>화밍톤</b><br/>Farmington</p> <p>Kim's Imports: 3030 E. Main<br/>Street, Suite 2, Farmington,<br/>87402 (505-327-7167)</p>                                     | <p><b>상점 Store</b></p>                                                                                                                         |                                                                                                                                             |
| <p><b>리커스토어 Liquors</b></p> <p>Kelly Liquors<br/>3850 E. Lohman Ave.<br/>Las Cruces, NM88011<br/>(575)522-4646</p>                                                                     | <p><b>치과 Dental Clinic</b></p> <p>Los Lunas Smiles Dr.윤자정219<br/>Courthouse rd.<br/>Los Lunas NM87031<br/>(505-865-4341)</p>                                                                 |                                                                                                                                                                   |                                                                                                                                                |                                                                                                                                             |

##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New Mexico  
2022년 11/12월호 발행일 : 2022. 11. 3.  
발행인 : 김기천 (Rev. Kee-Cheon Kim)  
편집부장 : 이경화 (Kyong Hwa Lee)  
출판부장 : 권구자 (Koo-Cha Choy)  
광고담당 : 신옥주 (Ok-Ju Shin)  
발행처: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출판부  
Korean UMC in Albuquerque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E-Mail : voiceofnm@gmail.com



一番  
**Ichiban**  
Japanese Restaurant

10701 Corrales Rd NW,  
Albuquerque, NM 87114  
(505) 899-0095

11:00am to 2:30pm (Mon-Sat) for Lunch  
4:30pm to 9:00pm (Sun-Thur) for Dinner  
to 10:00pm on Friday & Saturday





광고를 통한 후원에 관해서는 voiceofnm@gmail.com으로 또는  
(505)275-9021(광고담당:신옥주) 로 문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

**A-1**  
**한국식품**  
한국음식카페 CAFE  
A-1 ORIENTAL MARKET  
日本の食品  
Mon-Sat 10:00am-7:00pm  
Closed on Sunday  
(505) 275-9021  
Website: [www.a1orientalmarket.com](http://www.a1orientalmarket.com)  
[www.facebook.com/a1orientalmarket/](https://www.facebook.com/a1orientalmarket/)  
몽고메리/산페드로 코너  
6207 Montgomery Blvd. Albuquerque NM 87109

**The Garage AUTO REPAIR**  
30년 경험의 한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소입니다  
2년 연속 앨버커키저널 독자가 선정한 최고의 자동차 정비업소  
문의사항(505)352-5152  
영업시간: M-F 7:00am-6:00pm (토 일 휴무)  
웹사이트: <http://thegaragenm.com>  
주소: 6441 Western Trail NW Albuquerque, NM 87120

생명보험 : 사랑하는 가정경제를 지키는 버팀목  
롱텀케어 : 양로병원과 간병을 지원하는 플랜  
IRA : 안전과 수익을 함께 보장하는 지수형이자

  
HAN JU LEE (financial professional)  
CA Lic.#0K41143 / NM Lic.#17684619  
213.321.8787  
[carlitos3840@gmail.com](mailto:carlitos3840@gmail.com)

**HANMI**  
KOREAN-CHINESE FUSION  
Business Hours  
Wed - Mon 11am ~ 3pm / 4:30pm ~ 9pm  
Tuesday Closed  
2120 Juan Tabo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Tel: (505) 717-1287

**R1 NEW MEXICO**  
THE FUTURE OF REAL ESTATE

  
김영신/부동산중개인  
**Yong Shin Kim**  
505.321.7695  
[yongshinkim001@gmail.com](mailto:yongshinkim001@gmail.com)  
[www.R1newmexico.com](http://www.R1newmexico.com) 505.883.9400